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1931.04. ~ 2022.02.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위원회

(사)기독교민주화운동, 국경선평화학교, (재)남북평화재단, 봉원교회, 세계YMCA연맹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유니온신학대학원(뉴욕)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사)평화누리, 족제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에큐메니컬학회, (사)희망의 소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이력

주요 학력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종교철학 박사
 미국 유니언신학대학대학원 조직신학 석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사
 로키마운틴대학 철학 학사

주요 이력

한국YMCA전국연맹 100주년기념사업회 공동대표(2014)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홍콩중문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1996~2001)
 미국 유니언신학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세계교회협의회 신학교육위원회 실행위원
 세계YMCA연맹 회장(1994~1998)

이력

2013~2021 국경선평화학교 석좌교수
 2013~2017 (재)남북평화재단 이사장
 2011. 고양시 시정참여위원회 위원장
 2010. 10. 사단법인 고양평화누리 창립위원장
 2009~2011 죽재 서남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2001~2007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이사 및 부회장
 1994~1998 세계YMCA연맹 회장
 1990~1993 제12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학장
 1989~1990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제25대 이사장
 1988-199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담임목사
 1988. 2.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88선언, 통일정책연구소위원회 위원(집필총합))
 1983~1985 제6대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1982~1984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 회장
 1980~1981 제8기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1978~1994 제11기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1975~1979 제8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과장
 1964~1996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교수

주요 저역서

서광선, 박형규 옮김, 랜돌프 밀러 지음, 『기독교교육과 교회』 (기독교서회, 1965).
 서광선, 『지성 세속 신앙』 (대한기독교서회, 1972).
 서광선, 현영학, 『현대사회와 종교』 (신구문화사, 1974).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증보판, 2009).
 서광선, 『(에세이집) 악령의 시대』 (민음사, 1975).
 서광선, 소홍열, 신옥희, 정대현, 『철학하는 방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서광선, 정대현 편역, 『비트겐슈타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서광선 옮김, 피터 버거 지음, 『이단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1981).
 서광선, 소홍열 편역, 『과학과 상상력』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1).
 서광선, 정진홍, 한완상, 김광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대화출판사, 1981).
 서광선, 김용복, 민경배, 장일조 외,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풀빛, 1981).
 서광선, 김종운 외, 『미국인의 선택』 (문학과지성사, 1982).
 David Kwang-sun Suh, Theology, Ideology and Culture (WSCF Asia/Pacific, 1983)
 서광선, 『(공동기도문집) 사랑의 하나님』 (정우사, 1984).
 서광선 외, 『현대한국수상록 51』 (금성출판사, 1984).
 서광선, 『(설교집) 병어리의 노래』 (정우사, 1985).
 서광선, 『한국기독교의 새 인식』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서광선, 주재용 편, 『역사와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5).
 서광선,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서광선, 『(정치신학평론집) 신 앞에 민중과 함께』 (한울, 1991).
 서광선 외, 『한국수상록 26』 (금성출판사, 1991).
 서광선, 『(설교집) 계절따라 성령따라』 (정우사, 1991).
 David Kwang-sun Suh, The Korean Minjung in Christ (Commission on Theological Concerns,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1991 / Eugene, Ore. : Wipf and Stock, 2001).
 David Kwang-sun Suh, Virginia Fabella, Peter K.H. Lee, eds., Asian Christian Spirituality: Reclaiming Traditio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1).
 서광선 옮김, 도로테 켈레 지음,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한국신학연구소, 1993).
 서광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반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서광선, 『한국 기독교 정치신학의 전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서광선 옮김, 로이 메이 지음,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대학기독교서회, 1998).
 서광선, 장윤재 옮김, 도널드 W. 슈라이버 지음, 『적을 위한 윤리: 사회와 용서의 정치 윤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John C. England, David Suh, et al., eds, Asian Christian Theologies: A Research Guide to Authors, Movements, and Sources(New Delhi:ISPCK, 2002, 2003, 2004)
 서광선, 서인선, 서철선, 서만선, 홍경만, 『(서용문 목사 순교 60주년 추모문집) 대동강 건너, 요단강 넘어』 (동연, 2010).
 서광선, 안광식, 김재은, 김영호, 김영일, 『팔순 양떼 교수들 이화 사랑 반세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서광선, 『(설교집) 무지개를 좇아서』 (동연, 2011).
 서광선, 유동식, 서공석, 정양모, 심상태 외, 『내가 믿는 부활: 삶의 신학 콜로키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
 서광선, 『(서광선의 정치신학 여정)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한울, 2018).
 서광선, 『기차길 나그네길 평화의 길』 (한울, 2019).



故 서광선 목사

1931.04. ~ 2022.02.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1



4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1931.04. ~ 2022.02.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19

01 故 서광선 목사를 추모하며

-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26
안재웅 ((사)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 선생님의 지혜와 격려를 기억하며 32
장상 (WCC 공동의장)
- 故 서광선 목사 애도의 편지 33
세계교회협의회(WCC)
- 서광선 박사님 편히 잠드소서 35
Carlos Madjri Sanvee (세계YMCA연맹 사무총장)
- 사랑하는 스승이자 친구, 서광선 목사님께 37
Angela Wai Ching Wong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부의장)
-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위해 살아간 주님의 참 제자 40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함 42
김영주 ((재)남북평화재단 이사장)
- 시민사회와 함께 하신 삶 44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 서광선 박사를 위한 헌사 46
Philip L. Wickeri PhD (전 샌프란시스코신대학 교수)
- 서광선 선생님을 기억하며 50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52
송인동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Rev. Dr. David Kwang-sun Suh 54
Bart Shaha, Ph. D.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 A big tree in World YMCA has fallen 56
Prof. Song In-dong (President of Korea YMCA), Nam Boo-Won (General Secretary of APAY)

- 영원한 청년의 마지막 말씀 '참사랑은 정의' 크게 울립니다. 59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 경애하는 서광선 박사님 61
배현주 (전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서광선 선생님과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며 62
박정해(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제자)

- 선생님 사랑합니다 64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 닦고 싶은 선생님 66
오종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 영원한 청년! YMCA 참 스승! 68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故 서광선 박사님의 뜻과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 69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 70
이숙진 (전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 제 삶의 영원한 멘토이셨습니다 71
남부원, 한인규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 많이 그립습니다. 72
한미미 (세계YWCA연합회 부회장), 조혜연 (청소년YMCA 회원)

- 행복한 시간들이었소. 73
이영란 (기독교사상)

02 故 서광선 목사를 기억하며

- 예수님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2021.3. 서광선) 86
- 책을 덮으며 (2018년, 서광선) 93
- YMCA, 평화 바이러스 제작소 (2015년, 서광선) 97
- 죽은 것 같지만, 보시오, 살아 있소. (2021, 서광선) 102
-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기독교 (2019년, 서광선) 104
- 용서의 순간, 은혜의 순간 (인터뷰, 20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8
- 민주화 통일운동에 평생 헌신한 서광선 목사 (인터뷰, 2019, 고양신문) 112
- 아버지 죽인 원수 용서한 서광선 목사 (인터뷰, 2014, 한겨레신문) 119
- 마지막 육성 인터뷰 (2022.2. 국경선평화학교) 123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순서

집례 : **장윤재** 이화대학교회 담임목사
오르간 반주 : **정순** 이화대학교회
피아노 반주 : **정은경** 희망의소리 대표

전주

예배에의 부름 집례자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함께

1.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 나
2.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 나
3.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 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 다
내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 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 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 다

후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 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다

교독 시편 116편(50번)..... **다함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약력 소개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추모 영상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기도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6:4~10 **권진관** 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안재웅 목사** (사)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추모의 연주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바이올린 **정가영** / 첼로 **유지명**

추모사

1. 선생님의 지혜와 격려를 기억하며 : **장상** WCC 공동의장
2. 서광선 박사님 편히 잠드소서 : **Carlos Madjri Sanvee** 세계YMCA연맹 사무총장
3. 사랑하는 스승이자 친구, 서광선 목사님께 : **Angela Wai Ching Wong**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부의장
4.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위해 살아간 주님의 참 제자 :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추모의 노래 You Raise Me Up **이동환** 테너

회고

1.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함 : **김영주** ((재)남북평화재단 이사장)
2. 시민사회와 함께 하신 삶 :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3. 서광선 박사를 위한 헌사 : **Philip L. Wickeri PhD**,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교수
4. 서광선 선생님을 기억하며 :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추모의 노래(합창)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한국 에큐메니컬 평화의 동지들 **다함께**

A musical score for a hymn in G major. The score is written for voice and guitar.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y with lyrics: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 보아라 우리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The third system has a bass clef and continues with lyrics: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 일곱 우-'. The final system returns to a treble clef with lyrics: '번쩍 일곱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 아-님-어저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Chords indicated above the staff include A, D, F#7, Bm, B7, E, E7, A, A7, D, Dm, A/E, E7, A, D, A7, D, Dm, A/E, E7, A.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명상합니다.

말씀으로 위대한 천지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명하지 못하셨습니까?

인류를 향한 알뜰하고 뜨거운 사랑을 희생 이외에는 보여줄 길이 없었던 것입니까?

죽음과 고난은 단지 피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용되고 바쳐져야 할 내용임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을 넓히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에 들어가는 수련을 완성합니다.

고난은 인간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창조적 고통과 대속적 희생에 의하여 밝혀지며

영광의 부활은 십자가를 무릅쓰는 자만이 소유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그가 당한 수치를 우리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광장은 넓고 넓지만 그 넓은 광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긴 계속을 지나 우리를 드디어 당신의 넓은 품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다함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2년 3월 28일 사순절의 기도, 서광선 목사)

유가족 인사

후주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¹⁾

안재웅 (사)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고 서광선 목사님의 추모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삶의 대부분을 이곳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석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이 일을 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사셨습니다.

목사님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남기신 이런저런 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일관된 사상과 학문의 관심이 “평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한(恨)은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떠안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평화를 갈망해야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평화를 평생의 화두로 삼게 된 근거는 아마도 부친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 아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하신 서용문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을 고대하셨습니다. 때가되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봉수교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말씀도 가끔 하셨습

니다. 목사님의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난 2월 26일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빈소도 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신을 의대생들에게 해부용으로 기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숨을 거두셨기에 화장을 하였고 현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기도를 드린 후 장지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장례문화를 남기셨습니다.

자유를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just war’ 혹은 ‘거룩한 전쟁holy war’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십자군 전쟁 역시 성전(聖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말은 가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하물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핵폭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평화의 수단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한 개인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국민들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정의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평화는 인간 해방과 구원의 목적이며 동시에 수단입니다. 서광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설교의 한 대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은 논리가 정연하고 필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많은 선언문과 에큐메니컬 기구들의 근간이 되는 목적문들을 다듬어 내셨습니다. 저는 세 개의 대표적인 문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입니다. 일명 “88선언”으로 불리는 이 문건은 1988년 2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역사에 기리 남을 88선언문을 다듬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을 기억합니다. 이 성명은 남북한이 무력통일을 포기하고 자주적, 평화적인 통일을 다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획기적인 통일의 3대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1)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고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설교 말씀.

남북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을 존중하면서 “88선언”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 민족 자주의 원칙
- 인도주의의 원칙
- 민족대단결의 원칙
- 민주적 참여의 원칙
- 평화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채택 하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둘째, “도전21(Challenge21)”이라는 세계YMCA 미션 선언문입니다. YMCA는 1855년 세계 YMCA연맹의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파리기준(The Paris Basis)”과 1973년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캄팔라원칙(The Kampala Principles)” 그리고 1998년 독일에서 채택한 “도전21”이라는 YMCA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세 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YMCA가 감당해야 할 방향과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는 “도전21”이라는 진전된 문서의 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 하셨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1855년에 채택된 파리기준이 YMCA 사명의 근간임을 확인하면서, YMCA가 청년들의 진정한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기독교운동이며, 에큐메니컬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운동임을 선언한다. 또한 YMCA는 모든 피조물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에 기초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인간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독교적 이상을 나누기 위해 애쓸 것이다.”

1973년에 채택된 “캄팔라원칙”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도전21”은 7대 과제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개인의 영·지·체적 안녕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한다.
-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

-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복돋우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 신념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 간에 대화와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며, 아울러 문화적 갱신을 촉진한다.
-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일한다.
- 분쟁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추구하며, 모든 이들이 자기결정력을 갖기 위해 의미 있는 참여와 진보를 할 수 있도록 일한다.
-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조물들을 보호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YMCA는 모든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속과 자결을 가늠케 하는 협력의 패턴을 개발할 것이다.

이 역사적인 문서는 서광선 목사님이 기초위원장으로 활약한 덕분입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세계YMCA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셋째, “한국YMCA목적문”입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1976년에 목적문 기초위원으로 당대의 신학자들과 함께 목사님은 이 문서를 다듬어 낸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YMCA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목적문, 1976년 제정/2014년 개정)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한국YMCA역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자요, 교수요, 목회자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한국 민중신학 1세대 민중신학자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목사님과 관련한 많은 기독교 기구들이 오늘 추모예배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의 직함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문리대 학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명예교수
- 미국 뉴욕 유니언신학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드류대학교 초빙교수 홍콩 중문대학교 초빙교수

- 세계YMCA연맹 회장
-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이사 겸 부회장
- 현대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이사장
-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국내외 대학들은 물론 많은 에큐메니컬 기관들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침략의 기차 길, 나그네 길은 끊어지고, 이제 평화의 기차 길이 새 시대와 함께 열리는 날을 꿈꾸면서 목사님은 <기차 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이라는 자신의 저서에다 이런 말씀을 담아 제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종착역에서 다음 평양행 기차를 기다리며 드립니다.

2019년 늦은 가을, 서광선.”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저의 삶에 영원한 멘토로 살아있습니다.

함선영 교수님을 비롯한 유족들은 물론 추모예배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서광선 목사님이야말로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아 있음을 경험하는 귀중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선생님의 지혜와 격려를 기억하며²⁾

장 상 세계교회협의회 회장(아시아)

한 달여 전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자 유쾌하고 따뜻한 동료이며 친구였던 서광선 교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서광선 교수님은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이끈 분이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특별히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민군에 의해 부친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음에도 한국 개신교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88 통일선언'의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한 맺힌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 민중신학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한국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한'의 사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광선 교수님은 언제, 어디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중심에 서셨습니다. 중심에 서려 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보다 빨리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섬김의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에 서셨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일하시든 그분의 명민함,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는 능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는 WCC, NCC에서 서광선 교수님과 함께 활동했고, 이화여대에서는 같은 과 후배 교수로서, 나중에는 총장으로서 함께 일하고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서 교수님은 어디서나 친구가 참 많으셨습니다. 유능하고 유쾌한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든든한 선배로,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분으로 늘 옆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웃음, 격려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2)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故 서광선 목사 애도의 편지³⁾

세계교회협의회(WCC)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서광선 목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픕을 당한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인이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민중신학자 중 한 분으로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88선언 초안 작성자 중 한 분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고인의 삶과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종인 서광선 목사님에게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고통 속에 위안을, 슬픕 속에 희망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3) 2022년 3월 2일, 요안 사우카(Rev. Prof. Dr Ioan Sauca)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대행(Acting General Secretary)이 보내온 서함입니다.

Condolence letter Rev. Prof. Dr David Kwang-sun Suh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have received the news of the demise of Rev. Prof. Dr David Kwang-sun Suh. On behalf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 express my deep sorrow and prayers in support of both his bereaved family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e give thanks to his great efforts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poor, oppressed, and marginaliz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minjung theologians. As one of the drafters of the NCCK's 88 Declaration, we also deeply appreciate his contribution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ank God for the life and witness of Rev. Prof. Dr David Kwang-sun Suh a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May our common Lord Jesus Christ, the Lord of life and resurrection, give rest to his faithful and beloved servant Rev. Prof. Dr David Kwang-sun Suh.

May God also grant us grace, that in pain we may find comfort, in sorrow hope, in death resurrection.

Yours in Christ,

서광선 박사님 편히 잠드소서⁴⁾

Carlos Madjri Sanvee 세계YMCA연맹 사무총장

세계YMCA연맹은 세계YMCA 가족을 대표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YMCA연맹 회장 직을 맡으며 우리 운동체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서광선 박사님과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애도의 시간에 한국YMCA와 아시아태평양YMCA연맹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광선 박사님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진정한 사회 정의의 옹호자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 명예 교수로서 서광선 박사의 수많은 업적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1991년 서울에서 열린 YMCA 세계대회 직후에 시작된 YMCA 사명을 정리한 선언, '도전 21'의 기초위원회 의장의 역할을 맡으신 서광선 박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도전 21'은 이후 박사님의 세계YMCA연맹 회장 재임 중 완성되었으며, 1998년 독일에서 열린 제14차 YMCA 세계대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두 살피신 서광선 박사님께 영원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서광선 박사님은 세계 시민의 진정한 본보기로서 국제 YMCA 운동의 사회 정의를 새롭게 만드

4)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셨습니다. 박사님은 우리의 에큐메니컬 정체성을 심화시켰고, 그의 지도 아래 우리의 운동은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YMCA 운동은 박사님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박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영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Rest in Peace Dr David Suh

On behalf of the global YMCA family, the World Alliance of YMCAs sends its sincere condolences to the family and friends of Dr David Suh, a much loved and respected servant of our Movement, and the President of World YMCA from 1994 to 1998. We also stand with the Korean YMCA and the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s at this time of great loss.

We remember a great leader, and a real champion of social justice. We salute Dr Suh's many accomplishments, especially his teach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as Professor Emeritus of Theology.

We give special thanks for Dr. Suh's role - started soon after the 1991 YMCA World Council in Seoul - in chairing the drafting committee for the YMCA mission statement, 'Challenge 21'. That statement was later completed during his Presidency, and adopted at the 14th YMCA World Council held in Germany in 1998. We are eternally in Dr Suh's debt for piloting that process.

Dr Suh was a true example of a global citizen, who reshaped the social justice of our global YMCA Movement. He deepened our ecumenical identity, and under his leadership our Movement was clearly positioned as a voice for the voiceless, the vulnerable and the under-privileged.

The world movement will continue to cherish his memory and to seek to apply his inspiration.

사랑하는 스승이자 친구, 서광선 목사님께⁵⁾

Wai Ching Wong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부의장

저는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의 프로그램 부의장을 맡고 있는 와이 칭 웡(Wai Ching Wong)이라고 합니다.

서광선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서광선 목사님과 제가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 재단에서 제가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기꺼이 어린 시절과 아버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던 한반도가 둘로 나뉘는 극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광선 목사님이 북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날까지도 38선을 넘어 한 가족으로 살고 계셨던 것이지요.

서광선 목사님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에 이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는 재단의 홍콩 사무실을 세우고 이끄는 역할을 맡으셨으며, 2006년에 프로그램 부의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이게 세 번째 은퇴라고 하셨지요. 재단을 아시아화하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고 농담을 하곤 하셨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이 아시아를 사랑한다는 것어요. 서광선 목사님은 2020년에 있었던 마지막

5)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인터뷰에서도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인’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재단의 부의장을 맡으시면서 목사와 교수, 아시아 대학의 지도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을 꼽자면 아시아 문화와 종교 학술 강좌입니다. 15주년을 맞이했던 2019년에 서광선 목사님도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홍콩에 오셨었습니다. 서광선 목사님께서 품고 있던 아시아 리더십이라는 비전 덕분에 재단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비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언제나 꿈을 붙들었지요. 저는 재단의 일을 하면서 서광선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꼭 그의 조언과 지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0년대, 세계기독교학생회(WSCF) 아시아태평양연맹의 지원을 받아 텍사스에서 열리는 교육 학회에 가기 위해 떠났던 그 여행길에서 서광선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서광선 목사님은 세계기독교학생회 선배이자 해고당한 민중신학자였으며 막 감옥에서 나왔던 시절이었습니다. 학회에서 서광선 목사님이 하셨던 기조연설의 세세한 부분은 떠올릴 수 없지만, 정치적 신념을 위해 싸우고 고난을 겪는 신학자로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유머와 지혜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홍콩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서광선 목사님은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홍콩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광선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100주년 기념행사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서광선 목사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광선 목사님과의 만남을 떠올리다보니 이 시간이 마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서광선 목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비전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ribute to David, a beloved teacher and friend

It's still hard to believe that David is gone.

The last long conversation we had was an oral history interview I conducted for the United

Board. David loved to talk about his childhood, his father, the time he fled from Choson to the South. His story was in no way personal; it was a story of the dramatic historical transition from one to two Koreas. I have a hunch that David had never completely left Chosen and was still living a family stretching across the 38th parallel until his last days.

David joined the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as a trustee from 2000 to 2001. He was asked to set up and head the United Board's Hong Kong Office in 2002 and retired as the vice-president for programs in 2006. According to him, it was his third retirement. He often joked that he took a great burden on himself because he pushed for the United Board's Asianization. Everybody knows how David loved Asia. He advocated "Asians for Asia" until our last interview with him in 2020.

In his role as the United Board's vice president, he initiated many new programs for chaplains, faculty, and leaders of the As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grams,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Asian Cultures and Theologies, held its 15th Anniversary in 2019. David returned to Hong Kong to grace its celebration. His vision of Asian leadership had laid a firm foundation fo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Board's programs.

David was a man of vision who did not only walk the talk but also always held onto his dreams. I had the privilege to know him through the work of the United Board and enjoyed his advice and support all the way through. In fact, our first meeting started with our journey to an education conference in Texas in the eighties, supported by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Pacific. I was a student, and he was a senior friend and a minjung professor who was fired and had just come out of prison. I could not recall the details of his keynote but vividly remember his humor and wisdom as a theologian who had fought and suffered for his political conviction.

When Hong Kong went through all the challenges in the past two years, he would write me to encourage me from time to time. And he promised to return to Hong Kong for the United Board's centenary. We shall miss it, although I am sure we shall feel his spirit with us when we hold our event.

Recalling my encounter with David is like hearing from Ephesians 1: 17-18 that God has granted us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enlightened understanding, and the hope of God's calling. Thank you, David, for inspiring us with your vision and faith in life!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위해 살아간 주님의 참 제자⁶⁾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늘 고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적 지혜를 배웠던 몇 가지 작은 만남의 기억들이 함께 스쳐갑니다. 유신군사독재체제 말기에 미증유의 긴장이 감도는 관악캠퍼스에서, 기독교학생회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싹틔었습니다. 1996년 WCC 살바도르 세계선교와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온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통섭하는 신학적 인식에 공감하였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 작업을 하면서, 민족 화해에 대한 목사님의 체험적 신앙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다는 신앙고백을 살아내신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그 살육과 증오의 강을 건너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세계의 동과 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며 치유되고 화해된 오이쿠메네를 위한 비전을 소통하셨습니다. 다양한 종교문화의 저수지와도 같은 세상의 존재의 근원에서, 평화를 위한 깊은 영성의 샘물을 길어 마시며 우리의 영성의 우물을 파셨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세계의 분열이 만들어낸 장벽, 그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개된 목사님의 삶을 구성한 신학적 실천적 계기는,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고난당하는 한반도의 민중 현실에 성육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신학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증언과 연대 행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민중의 한(恨)의 역사 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죽임의 우상을 넘어가는 해학과 풍자의 수동적 저항, 혁명과 해방의 변혁적 저항을 살피시고,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살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생을 이 땅에서 전개된 하나님나라운동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펼치시는 하나님나라운동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목회와 정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는 복음의 근원적 부름에 무감각한 채,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생명적이며 소유적인 '진보와 성장'의 신화를 믿으며, 자본의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로워진 변혁적 제자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를 '거룩한 세계성'의 터 위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성육신적 선교공동체요, 냉전의식과 분파의식을 넘어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증언하는 살림공동체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정성스럽게 빚어주신 선물과도 같은 목사님의 생애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 드리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님의 뜻과 삶의 본을 따르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나라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신 서광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화.

6)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함⁷⁾

김영주 (재)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서광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제가 서광선 목사님을 만나 뵈게 된 것은 교회협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에서 평화·통일 국장으로 보직을 옮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평화·통일문제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여겨 인권위 사무국장의 경험이 평화·통일 국장으로 일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위원회의 업무를 접하고 보니, 평화·통일 운동은 인권운동과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광선 목사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펼쳐온 평화·통일 운동의 역사와 원칙, 그리고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고려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로 국제적 질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평화와 통일은 상호 작용을 하지만, 꼭 동일한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국교회가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 나갈 때, 남·북 정부의 입장은 물론 남·북 교회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의 가르침은 오늘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통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를 통해 서광선 목사님은 제게 때로는 좋은 선생님이요, 때로는 좋은 지도자로, 때로는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배출한 평화·통일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남북평화재단의 이론적 기초를 놓으시고 발기인과 이사로 함께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 주셨으며, 박형규 목사님에 이어 제2대 이사장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북평화재단은 서광선 목사님의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음은 우리 후학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한국교회(NCK)는 군사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 그리고 한국사회의 편견과 배척 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화와 통일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평화·통일로의 길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현실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평화·통일 운동의 대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평화·통일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학살당한 아버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 그리고 '1.4 후퇴'의 고통의 세월을 겪으셨던 목사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론적 반공주의가 아닌 체험적 반공주의가 견고하게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교회는 목사님의 평화·통일 운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기에, 목사님의 부재는 크게 애석한 일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다짐해 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원죄를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절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립던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늘 가슴 아파하시던 아드님을 만나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리소서.

7)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시민사회와 함께 하신 삶 : YMCA운동의 스승이자 큰 어른이셨던 서광선 박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⁸⁾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지금 이 순간, 떠나신 그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음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방 환한 웃음을 머금고 저 예배당 뒤편에서 조용히 나타나실 것 같은 당신을 추모하는 이 시간이 낯설기만 합니다.

당신의 삶은 순백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눈이 부서 쳐다볼 수 없는 높고 시린 그린 고귀함이 아닌, 누구나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언제나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이 있는 순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YMCA 동역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신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으며 그 만남을 통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희 YMCA 후배들은 당신께서 미소와 유머로 주시던 여백의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박사님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후배 동역자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경계없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을 불어넣고 비전의 삶을 살도록 지지하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서박사님은 1976년 한국YMCA 목적문을 작성할 때,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넣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목적문 작성자들에게는 나이브한 용어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이 없는 정의와 평화의 의미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YMCA운동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일에 지금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YMCA가 운동의 정신적 유산인 기독교 정체성을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당신이 위원장으로서 산파의 역할을 해내신 도전21(Challenge 21)은 세계YMCA 역사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도전21이 없는 현재의 YMCA를 상상해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21세기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이상을 담고 있는 도전21에서, 당신은 예수의 가르침에 천착하되 기독교를 넘어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는 물론 모든 피조물의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확장된 에큐메니즘을 운동과제로 제시하셨지요.

당신의 정치신학 여정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를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 역사 창조의 길이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희망의 정치이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정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지키고 키우고 보듬는 마음의 정치다. 희망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희망으로 성숙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컬 공동체를 넘어 시민사회를 섬기도록 초청하시는 당신의 정치신학의 여정을 봅니다.

이제 저희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희망의 정치신학과 치열한 삶의 유산들을 받아 안겠습니다. 다시 웃기를 여미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주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시오.

8)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서광선 박사를 위한 헌사⁹⁾

Philip L. Wickeri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교수

저는 50년 전, 1971년 초가을에 이화여대 사무실에서 서광선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니스(Janice)와 나는 도쿄에서 김용복 박사를 만나 서광선 박사에게 전달할 책과 자료를 전달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자료들 제목 중 하나가 T.K.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처음이었고 우리는 대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우리는 대만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 활동에 참여하고 중국어를 공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바빴고 우리는 그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광선 박사가 민중신학에 관해 쓴 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의 한국 민중』(1991)은 학제 간 민중 신학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탁월한 책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과 활동으로 끝을 맺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박정희 독재 시절 이화여대 교수직에서 쫓겨났고 사회의 주변부에서 민중과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훨씬 더 저명한 신학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M.Div. 모교)와 드루대학(Drew University)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서광선 박사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세계YMCA연맹 회장직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2003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및 신학 고등연구 연구소(The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in Asian Cultures and Theologies, IASACT)’를 위한 기획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서광선 박사에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및 신학 고등 연구 연구소’는 그의 아이디어였으며 그의 친구 팀 라이트(Tim Light)와 함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생 시절 유니온신학교 룸메이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다음 해(2004년)에 시작되어 서광선 박사가 2007년 은퇴할 때까지 학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또 다른 친한 친구인 프리먼 나일스(D. Preman Niles)와 함께 첫 번째 멘토가 되었습니다. 서광선 박사의 리더십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은 포용적 스타일, 활동에 대한 비전과 연구소 학자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대부분 시간을 스스로 연구하고 글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매일 두 시간만 만났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학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는 젊은 교수들과 박사 과정 학생들이 집에 있을 때 스스로 연구하고 글을 쓸 시간도 자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중문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 및 신학 고등연구 연구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농담으로 프리먼과 내가 멘토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학자들에게 온갖 요구를 하는 ‘고문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학과 종교를 폭넓게 생각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광선 박사의 인간성과 유머는 그를 학자이자 행정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는 목회자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는 일정을 전부 소화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아시아 문화 및 신학 고등연구 연구소’ 시절 널리 인정받는 선임 학자였지만, 그는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큰 의무를 짊어지려 했지만, 결코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수채화 세트를 가지고 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저에게는 그가 준 아름다운 만리장성 그림이 있습니다. 제니스는 1년 동안 발리에서 아시아 기독교 신학 연구 가이드를 위한 편집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녀는 그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과 해변에서 갓 만든 참치 초밥을 같이 먹고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림을 그려던 것을 모두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안재웅 박사에게서 서광선 박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감, 경험, 꾸준한 손길에 의지했기에 그는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학자들을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다. 서광선 박사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의 일부를 남겼고, 그래서 나는 그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9)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추도사.

A Tribute to David Kwang-sun Suh, 1931-2022

I met David Suh 50 years ago, in the early autumn of 1971, at his office in Ewha Women's University. Janice and I were coming from Tokyo, where we had been with Kim Yong Bock, who had given us some books and other materials to pass on to David. I remember that one of the titles was Letters from T.K. This was our first time in Asia and we were en route to Taiwan, where for the next two years we would be teaching English, participating in student work and studying Chinese at Tainan Theological Seminary. David received us warmly and we spoke for a bit, but he was very busy and we did not want to take up too much of his time.

From then on, I tried to keep up with what David wrote on Minjung Theology. The Korean Minjung in Christ (1991) was especially enlighten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interdisciplinary theology of Minjung, ending with a vision and a program for Korean Reunification. David has been dismissed as a professor at Ewha during the Park Chung-hee dictatorship, and he suffered with the Minjung on the margins of society. But he had emerged as an even more prominent theologian,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way forward. He subsequently held teaching positions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his M.Div. alma mater) and at Drew University. David was an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and held many other posts, including the presidency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 did not really get to know David until I took part in the planning meeting in Hong Kong for what was to become The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in Asian Cultures and Theologies (IASACT) in 2003. IASACT was his brainchild, and he worked together with his friend Tim Light - they were roommates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during their student years - to make this dream a reality. The program began the following year (2004), with David serving as dean until his retirement in 2007. I became one of the first mentors, alongside D. Preman Niles, another close friend in the ecumenical movement. What inspired me about David's leadership was his embracing style, his vision for the program and his concern for the IASACT scholars. He insisted that most of the time be given to the scholars to do their research and writing on their own. In the six-week program, we met for only two hours each day David believed in the scholars. As he knew from his own university teaching, young faculty and doctoral students had neither the time nor the resources to do their own research and writing

when they were at home. And so IASACT, meeting on the campus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would provide both.

He joked that Preman and I were not only mentors, but also "tormentors," making all sorts of demands on the scholars with whom we were working. David wanted something more open-ended so that scholars could pursue whatever interested them and thereby help develop creative new approaches to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broadly conceived.

David's humanity and humor made him stand out as both a scholar and an administrator. He had a pastoral heart. He took personal relationships seriously and he had time for everyone, even though he kept to his schedule. Although David was by the time of IASACT a widely recognized senior scholar, he wore this very lightly. He never took himself too seriously, although he made great demands on himself. He brought his set of watercolors wherever he went, and I have a beautiful picture of the Great Wall of China that he gave me. Janice was with him one year at an editorial meeting in Bali for the Asian Christian Theologies research guide, and she remembers both his sharp eye for detail, their sharing of freshly cut tuna sushi on the beach at sunset, and his painting whenever he had free time.

I was shocked and saddened when I heard from Ahn Jae-woong in late February that David had died. I thought he would always be there because we depended on his inspiration, his experience and his steady hand. He prepared the way for many younger scholars. David left something of his spirit on all who knew him, and so I believe that in some sense he is with us still. [end]

서광선 선생님을 기억하며¹⁰⁾

박경미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우리들의 선생님, 서광선 선생님께서 지난 2월 26일 밤 92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뛰어난 민중신학자이자 통일신학자,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대부셨던 선생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의로 가득찬 분이셨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세계YMCA연맹 회장, 한국기독교교회 회장,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 수많은 직함을 지니셨고, 1988년 역사적인 '88 통일선언'을 주도한 9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1970-80년대 한국 개신교는 유신독재와 신군부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그 순결하고도 눈부셨던 시절, 선생님은 언제나 그 험난한 자리에 함께 하였고, 그로 인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당하셨습니다. 해직 기간에 선생님은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복직하신 후 선생님은 여러 제자를 길러내셨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잇을 수 없는 기억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교실 안에서, 때로는 댁으로 초대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생각과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 수줍은 고백과 간증이 수시로 튀어나왔고, 우리는 지금 여기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실천적 언어의 세례를 받아 오래된 전통에서 유래한 개념적 언어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부활하는 언어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언어, 신학의 언어가 지니는 힘을 몸과 맘으로 느

낄 수 있었고, 신학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밥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우정과 환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느님나라의 기쁨을 얼핏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선생님은 일을 놓지 않으셨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청중으로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시며 질문하고 후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글쓰기 역시 멈추지 않으셔서 당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로 풀어내셨고, 그것은 그 시대 민중의 사회전기이자 '이야기 신학'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남북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 그 엄혹한 세월을 선생님은 누구보다 혹독하게 겪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목회자셨던 부친이 인민군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으셨고, 복수심에 치를 떨었지만, "하느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행 10:15)는 말씀을 계시처럼 듣고 남북화해의 길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언제나 낙관적이셨습니다.

말년에 거의 귀가 들리지 않아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된 선생님은 제자들이 쓴 짧은 글이나 책을 몸소 찾아 꼼꼼히 읽으시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며 자랑스럽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늘 '경애하는'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선생님의 편지는 혹여 흔들릴지 모를 제자들을 지지해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기독교신앙이 참 좋은 것이고, 믿음이 인간을 고결하고 굳세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먹어버린 제자가 선생님의 살아온 인생에 경의를 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작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회고 글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¹¹⁾

송인동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故 서광선 박사님은 동북아와 세계의 역사가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온 몸으로 삶의 좌표를 찾아 북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남으로 남에서 태평양을 건너 북미로... 나그네 길을 걸으며 스스로 좌표가 되셨고 이제 우리 시대의 나침반이 되셨습니다. 코로나로 분단으로 증오로 얼룩진 세상에 끊임없이 이웃을 격려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희망과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초극하는 따스한 미소와 부활의 신앙으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사회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오늘 여기에 우리 모였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위원회' 21개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故 서광선 목사님의 추모예배를 준비하시고 집례하여 주신 이화대학교회 장운재 담임목사님, 설교를 맡아주신 (사)기독교민주화운동 안재웅 이사장님,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이화대학교회 정순 오르간연주자님, 희망의소리 정은경 대표님,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님,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님, 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권진관 회장님, 오페라가수 이동환님,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인영남 이사장님, 대학부 이광호 간사님, 봉원교회 박용권 담임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와 회고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회장 장상 목사님, 세계교회협의

회 총무대행 Ioan Sauca 목사님, 세계YMCA연맹 Carlos Madjri Sanvee 사무총장님,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Wai Ching Wong 부의장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 (사)남북평화재단 김영주 이사장님,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님,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교수 Philip L. Wickeri 박사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님, 세계YMCA연맹 Bart Shaha 전 사무총장님, 한겨레신문에 추모사를 실어주신 한신대 김경재 명예교수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추모의 말씀을 올려주신 세계YWCA연합회 한미미 부회장님,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배현주 목사님,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오종남 이사장님, 이화여자대학교 박경미 교수님,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님 내외,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님, 한국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님, 청소년YMCA 조혜연 회원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애도와 그리움을 표하여 주신 한국여성신학회 이숙진 전 회장님을 비롯한 박정해님, 최수산나님 등 고 서광선 박사님의 제자 분들, 메인 홈페이지에 추모사를 한 달여 동안 게시하여 함께 애도하여 주신 아시아태평양YMCA연맹과 세계YMCA연맹, 서광선 박사님의 생전의 모습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겨주신 기독교사상의 이영란 기자님, 고양신문의 유경중 기자님, 한겨레신문의 조현 종교전문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 서광선 박사님을 추모하는 마음들이 국내의 경향 각처에 두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명하지 못함은 저의 부족함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모예배를 위하여 각처에 연락을 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추모문집을 애써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분들의 수고로 추모문집을 통하여 고 서광선 박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광선 박사님의 글과 메시지들을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고 주로 짧은 글들 위주로 신게 되었지만 이 글들이 예나 지금이나 현재형으로 펄떡거리며 지상에 남은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모인 여기에 유가족이 함께 자리하심으로 마치 故 서광선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애도와 그리움처럼, 우리의 애도와 그리움도 현재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뜻 서광선 박사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떠올라 우리 눈시울이 붉어질 것이며 그 밝고 환한 미소가 떠올라 우리의 마음이 따사로워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 평화의 사도 고 서광선 박사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고 서광선 박사님은 모질고 거친 세상에 스스로 찬바람을 맞는 좌표가 되셨고 우리와 다음 세대에도 삶의 뜻대이자 나침반으로 현재 살아계십니다.

11) 2022년 4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거행된 故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 감사 인사 글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Rev. Dr. David Kwang-sun Suh¹²⁾

Bart Shaha, Ph. D.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Former General Secretary of the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received today the news of the sudden passing of Rev. Dr. David Kwang-sun Suh. He was a close friend of mine and a constant source of inspiration in my journey in the YMCA. Since the time I began to work at the then Asia Alliance of YMCAs in Hong Kong in the early 1980s, I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him and working with him in various YMCA Meetings, Seminars and Conferences. With his vast knowledge of Contemporary Theology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contextual response, he served as a Resource Person in most of our important deliberations, including the YMCA Advanced Studies.

Later, in 1992 when he becam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on Christian Mission and Ecumenical Concerns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 had the great privilege of working closely with him, as the Related Secretary of the Commission. I was then serving as the Executive Secretary for Global Programmes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n Geneva. It was under his leadership that we were able to prepare a Mission Review Guide, considering the

diverse theological positions that exist in the world-wide movement. Based on the responses from national YMCAs, the draft of "Challenge 21" was formulated. I recall how meticulous and caring he was in the process of formulation of this historic draft, which finally was adopted at the 14th World Council of YMCAs meeting held in Frechen, Germany, in 1998, when he was President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 have no doubts that the YMCA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world-wide YMCA movement will always remember him with gratitude for his dedicated service and outstanding leadership. The YMCA has indeed lost a great thinker, a profound Theologian and a constant guide. We will miss him a lot!

On this sad day, my wife Emily and I wish to convey to his dear wife, Mrs. Sun Young and his entire family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our deepest condolences. May his soul find eternal rest in the peace of Jesus Christ.

12) Bart Shaha 전 세계YMCA연맹 및 아태연맹 사무총장은 고 서광선 박사님과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 YMCA운동을 함께 이끌고 가신 운동의 끈끈한 동지입니다.

“A big tree in World YMCA has fallen”

: our deepest condolence for the sudden demise of
Dr. David Suh, former President of World YMCA¹³⁾

Prof. Song In-dong President of Korea YMCA

Nam Boo-Won General Secretary of APAY

Dr. David Kwang-sun Suh,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1994-1998), passed away in Goyang city near Seoul, Korea, at night-time on February 26, 2022. “A big tree in World YMCA has fallen” as quoted from Mr. Carlos Sanvee, Secretary General of World YMCA.

Dr. Suh was born in 1931 in Kanggye city which is located in North Korea now. He studied in the US for his B.A. and M. A. and graduated with M.Div. in Theology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obtained Ph.D on Religion in Vanderbilt University. From 1966, he, as Professor of Theology, taught i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nd served as Dean of University Chapel, Dean of Graduate School. During the year 1980-1984, he was dismiss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 a political persecution towards dissidents by the harsh military dictatorship. In 1981, he was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After retirement in 1996, he was invited as Henry Luce Visiting Professor of World Christianity,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and taught for two years, as well as Visiting Professor of Asian Theology at Drew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until 2001. Thereafter, he served as Vice President of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Hong Kong Office, and an Honorary Professor of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until 2006.

Dr. Suh served enthusiastically throughout his entire life and contributed greatly to YMCA movement worldwide, as well as in the ecumenical communities. Among other contributions, in the 12th World Council meeting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n Seoul, Korea, he was appointed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on Christian Mission and Ecumenical Concerns” that was formed as an outcome of the resolution brought forth by APAY and LACA during the Council. The Commission was formed with members from all six continents,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lay and clerical, protestant and Catholic, and all with different accents or tongues of English. It continued its work for the ensuing eight (8) years including the four years of his Presidency of the World YMCA. And at the 14th World Council in Freshen, Germany in 1998, the historical statement was unanimously adopted and declared as a contemporary interpretative Mission Statement of the 21st century.

As a close friend of the late Kang Moon-kyu, former NGS of Korea YMCA, h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ntextual mission statement of the Korea YMCA in 1970s, thus laid a cornerstone for Korea YMCA to advance as socially responsible movement based on the teachings and footsteps of Jesus Christ. Along with this, he was frequently invited as resource pers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Advanced Studies and other APAY programs for his inspirational inputs on the contemporary theological thinking and YMCA Mission in context.

Dr. Suh’s father was a pastor, who was killed by the North Kore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Nevertheless, Dr. Suh forgave his enemy and prayed as well as committed himself to working to build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whole Korea. The Tosanso Process - a joint attempt by WCC and the NCC-Korea with a view to bridging the Christians of the two Koreas, is widely recognized as a historical milestone towards people-initiated peace and reconciliation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Dr. Suh played a pivotal role with other Christian leaders in South Korea, in this historic process, as well as in the making of the “Declar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on National Reunification and Peace” (88 Declaration) in 1988.

13) 2022년 3월 4일, APAY e-News에 송인동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과 남부원 APAY 사무총장이 함께 기고한 조사.

In his condolence message conveyed to Sun Yong, David's wife, Dr. Bart Shaha, former Secretary General of World YMCA wrote, "I have no doubts that the YMCA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world-wide YMCA movement will always remember him with gratitude for his dedicated service and outstanding leadership. The YMCA has indeed lost a great thinker, a profound Theologian and a constant guide. We will miss him a lot!"

He will be remembered long by the World YMCA family with all of what he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YMCA movement nationally, regionally, as well as worldwide. May God receive him into an eternal peace in heaven.

영원한 청년의 마지막 말씀 '참사랑은 정의' 크게 울립니다¹⁴⁾

- 고 서광선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기리며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목사

지난달 26일 소친한 고 서광선 선생을 기리는 내 맘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인상은 항상 푸르른 노송 같은 '늙지 않는 젊은이'라는 인상이다. 서 교수가 동석한 대화 자리엔 언제나 유머가 넘쳤고, 80~90대를 살아가면서도 20~30대 청년인듯 나이를 잊은 사람처럼 영원한 청년 감성을 잃지 않으셨다.

서 교수를 처음으로 뵈던 계기는 1970년대 중반기,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목적문' 작성 기초연구위원으로서 만남이었다. 그때 강문규 총무님의 열정에 응답하여 서남동, 현영학, 서광선, 김용복 박사 등 선배 선생님들과 더불어 필자도 말석에 참석하였다.

'한국기독교청년회 목적문'은 그 시대의식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명문으로서 온 세계 와이엠시에이 회원국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주목을 받았다. 1976년에 제정되었던 불과 30자 단어로 구성된 '목적문'은, 서 교수를 비롯한 당대 기독교 지성인들의 비전, 열정, 책임적 결단,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실천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목적문'을 읽어보면 서 교수의 체취가 풍겨 난다.

14) 2022-03-09,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1034216.html>

그는 ‘철학적 신학자’지만 그의 신학은 ‘목적론’ 속에 다 담겨있다. 중요한 열쇠 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 ‘역사적 책임의식’, ‘생명에 대한 감성’, ‘사랑과 정의와 평화’, ‘민중의 복지’, ‘민족의 통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괄적 비전으로서 ‘하느님의 나라’ 실현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1950년 초가을 어느 날, 북한 공산당원에 의해 서 교수의 부친 서용문 목사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큰 아픔과 적개심을 품고 자랐던 아들이었지만, 서 교수는 반공의식으로 무장한 극우파 신학자가 되지 않고, 용서와 화해와 남북교류를 강조한 민중신학자로서 남은 일생의 길을 올곧게 걸었다. 서 교수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이화여대 교수자리에서 강제 해직당하기 전, 1970년대 중반기에 태동된 한국 민중신학 운동의 선구자였다. 민중신학회 동지였던 서남동 교수가 광주 5·18 국립묘지로 이장된 이후, 노구를 무릅쓰고 한해도 거르지 않고 7월 여름 혹서에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후학들에게 무덤가 잔디에서 오순도순 느린 차분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씀하던 그분의 성실성을 잊을 수 없다.

나이로는 훨씬 아래인 필자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며 격려 겸 나무람도 하셨는데, “왜 장공 김재준 목사가 힘써 출판하시던 월간잡지 <제 3 일> 을 속간하지 않느냐? 기장교단과 한신대 장공의 제자들이 다 죽고 없느냐?”라고 힐문하셨다. <제 3 일>은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와 함께, 군부 독재정치가 이 땅의 언론을 목졸라 죽일 때, 민중들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70년 4월 창간된 월간지이다.

신학자로서 서 교수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친 두 사람만 든다면 미국 예일대 교수로서 ‘책임적 자아’를 강조했던 리차드 니버와 장공 선생일 것이다. 한국 기독교 진보신앙의 대부인 장공은 말했다. “예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뿌리를 심어 넓고 깊게 뻗게하는 정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본질적인 경륜과 배포에서 하나님 나라 정치를 추진하신다.” 그리고 그 정치의 궁극 목적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요, 그 전략과 구체적 실천 목표는 “생명·평화·정의”라고 갈파했다. 목사로서 서 교수는 장공의 뒤를 잇는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가슴은 아버지의 신앙유산 영향으로 보수적이지만, 신앙의 머리는 장공을 닮아 매우 진보적이었다.

서 교수는 그가 30년 세월동안 교목으로서 봉직한 이화여대의 새로 지은 채플실에서 행했던 마지막 사순절 초청자 설교에서 기독교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교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참사랑에는 정의가 따라야 한다.”

경애하는 서광선 박사님¹⁵⁾

배현주 전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국내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거목들이 떠나시는 이월입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큰 버팀목이셨던 폴 슈나이츠 목사님도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동지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나 환한 웃음을 나누시며 담소하실 듯 합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깊고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으셨던 멋진 분들이십니다.

임종하시는 날까지도 이메일과 전화 등 일상적 업무를 지속하시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으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셨다가 참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가족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삶을 사셨던 서박사님의 면모를 느낍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는 에큐메니컬 지도자의 삶을 살아오신 서광선 교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큰 슬픔을 겪으시는 사모님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5)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2월 28일)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서광선 선생님과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며¹⁶⁾

박정해 선생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제자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진리에 목마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신학은 삶이라고 가르치시며 그대로 사셨습니다.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않으시면서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고
주변에는 사랑의 흔적만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몫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희의 눈물을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6)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3월 1일), 박정해(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생)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선생님 사랑합니다¹⁷⁾

최수산나 이대 기독교학과 89학번

서광선 선생님~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신지요~

선생님을 스승으로 만나뵈 건 제겐 축복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면접 시 어설플 신입생의 답변에도 부드러운 웃음으로 감싸주셨던 선생님은 이대 기독교학과가 참 좋은 학교라는 기대감을 주셨답니다. 대학 3년 때 처음 들은 선생님의 수업. 그 어려운 조직신학을 너무 유려하고 쉽게 풀어주셔서 쉬운 과목이라고 착각하게 해주셨지요~ 대학원생으로 선생님 과목 조교를 할 때에는, 애쓰다며 실수에도 늘 격려를 더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선생님을 'KFC 할아버지' 닮으셨다며 좋아했고, 사모님이신 함 선생님을 우리 '색시'라고 부르시며 무한 애정을 보이실 때에는 로맨티시스트시라며 존경했지요.

사실 감히 제자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민중신학자이신 선생님께 배운 것을 늘 저의 행운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선생님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된 건, 제가 YWCA에서 활동을 하고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그 유명한 88선언의 주필자이자 평화통일운동 1세대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대선배로 살아오신 선생님. 참 신앙인으로서 진실된 성직자로서,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오신 선생님의 평화의 영성과 깊이있는 삶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책과 영상으로 밖에 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처럼 편하게 제자로 찾아뵈지 못한 것도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과 더 가까워지는 법은 남겨주신 평화에 대한 열망과 뜻을 이어가는 것이겠지요.

선생님의 활짝 웃으시던 모습 기억하며,
가르쳐주신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17)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3월 1일), 최수산나(한국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답고 싶은 선생님¹⁸⁾

오종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저는 2007년 1월부터 오늘날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모태가 된 이화학당을 설립한 재단인 미감리교회대한부인선교부유지재단의 이사로 일하며 서광선 교수님을 알게 되고 자주 뵈게 되었습니다.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가 조선에 파송한 최초의 여성교사인 스크랜턴 여사(Mrs. Mary Scranton)는 ‘한 여성을 교육하는 일은 그 가족, 사회 나아가 그 나라를 교육하는 것과 같다(To educate a woman is to educate her family, her society and her country.)’는 믿음으로 1886년 5월 31일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이사진 모두가 한국인으로 교체된 미감리교회대한부인선교부유지재단 이사회는 스크랜턴 여사의 여성 교육에 대한 믿음을 이어갈 목적으로 재단을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 15년 동안 서광선 교수님의 헌신적인 열정과 지도 덕분에 여성교육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17개국 61개교 2,218명의 여대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구를 살리는 여성 리더십 공모전을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지구를 살리자!!!’를 주제로 한 스크랜턴 에세이 콘테스트 응모작 60편을 전부 심사해주실 정도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 교수님을 15년 동안 가까이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 있었음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답고 싶은 role model이신 존경하는 교수님,

이제 세상에서의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하늘 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8)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3월 1일), 오종남(Chair of the Board 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영원한 청년! YMCA 참 스승!¹⁹⁾

이명화 한국YMCA 간사

서광선 박사님!

마음 속으로만 한 번 찾아뵙고 싶다고 했을뿐, 마지막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재치와 유머 넘치게 Y간사 제자들을 환대해 주셨던 그 넓고 깊은 품 너무 그리울듯 합니다.~

근래에는 Y연맹 100주년 영상, 연맹 실무자 신년하례예배, Y연맹 사무총장 취임식, 전국대회 등에서 늘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간사들에게 따뜻한 격려, 이화대학 명예여성 1호라시며 여성들 앞에서는 편한데 남성들 앞에서는 긴장된다 하셨던 말씀도 제겐 기억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진보꼰대가 아닌 소통의 리더십 강조하셨던 권면의 말씀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계속 뵙고 싶었던 저희들의 욕심~ 이젠 박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박사님 마지막 말씀책 곁에 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서광선박사님 편안히 쉬세요.~

박사님 소망하시던 이 땅의 통일과 평화 염원 이어 가겠습니다^^♡♡

박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19)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2월 28일), 이명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故 서광선 박사님의 뜻과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²⁰⁾

김기현 한국YMCA 간사

서광선 박사님께서서는 부천YMCA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천YMCA가 어려울 때나 새로운 모색을 할 때는 서광선 박사님을 모시고 YMCA 목적문이나 세계YMCA 도전21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마다 YMCA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서광선 박사님께서 마지막 강의를 오신 2017년 11월 28일, 부천YMCA 생활신앙강좌, 이날은 생활신앙 강좌라서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북한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아버지 목사님, 월남해서 겪었던 고초와 미국을 가시게 된 이야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야기 등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한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참가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부천YMCA에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고인의 뜻과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사(2022년 2월 28일),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²¹⁾

이숙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제자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
지난 금요일 오후 “서광선 박사의 1만 평화시민캠페인 응원메시지” 영상을 친구들과 같이 봤습니다.
와아~ 역시 우리 선생님하며 다들 그리워했지요.
오는 봄에는 꼭 뵙자 약속까지 하면서요,
아아 바로 다음 날 영영 먼 길을 떠나시다니요,
황망하고 허망하여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일과 사진만 내내 보고 있습니다.
작은 원고여도 언제나 첫 독자로 격려해주시던 우리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품위있는 유머,
별써부터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 그곳에서 편히 계세요.
저희는 애도와 감사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1)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 글(2022년 2월 28일), 이숙진(전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제 삶의 영원한 멘토이셨습니다²²⁾

남부원, 한인규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함선영 선생님,
어젯밤 늦게 소식을 접하고 저희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물며 함선생님은
어떠실까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이윤희 총장과 함께 두분 아파트 댁 앞에서 서박사님을 함선생님과 함께 뵈
이 마지막 대면 만남이 될 줄이라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서박사님의 지난 삶의 자취를 더듬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사건사건마다 서박사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셨음을 가
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히 주어진 삶의 무게와
사명의 십자가를 충직하게 지고 일생을 마감하신 서박사님을 평화로 가득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
시리라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을 끔찍히 아끼시고 늘 애정과 관심을 부어주시던 서박사님이 벌써 그립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울고 계시는 함선생님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서
박사님을 하늘나라로 평안히 보내드리시고 또한 이 깊은 슬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저의 둘이 멀리
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2)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 글(2022년 2월 28일), 남부원(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故 서광선 박사님을 추모하며!²³⁾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운동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던 모습... 활짝 웃으시면서 항상 반겨주시던 모습... 많이 그립습니다. 주님곁에서 환하게 웃으시고 계실 선배님을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한미미 세계YWCA연합회 부회장, 2022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박사님

2013년 겨울, 청소년YMCA에서 강연을 해주실 때, 뵈는 적이 있습니다. YMCA가 무엇인지 모르던 저는,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Y 인생이 박사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악수를 청하며 YMCA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온기와 단단함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가끔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박사님의 가르침과 열정을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조혜연 청소년YMCA 회원, 2022년 2월 28일

23) 故 서광선 박사님 온라인 추모공간에 실린 추모 글모음(2022년 2월 28일)
<https://www.rememberyou.kr/memorials/266762>

행복한 시간들이었소²⁴⁾

이영란 기독교사상

일산의 한 음악학원, 피아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거기 조그만 방에 서광선 교수가 있었다.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면서 지내는 곳, 큰 며느리가 학원 원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그는 사단법인 희망의 소리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다른 공간은 신촌에 있다. 제자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사색도 하는 곳인 신촌 사무실은 월, 수, 금요일에 들른다.

서광선 교수의 두 아들은 모두 음악을 한다. 큰 아들은 클래식기타를 하고, 작은 아들은 재즈드러머이다. 마침 큰며느리도 피아니스트여서 그들은 음악으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희망의 소리'를 만들어 크고 작은 음악회를 연다. 그들의 지역기반인 고양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음악회를 열거나, 음악이나 예술로부터 소외된 다문화가족들이나 군부대 등을 찾아가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도 한다. 이제는 고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초청이 들어와 지방으로 공연을 나가기도 한다. 서 교수는 희망의 소리에 이사장이 된 것이 "지원금을 협조받기 위해서겠죠." 하며 웃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신학 하는 사람이 음악 하는 아이들을 둔 덕에 음악에 대해 배우고 있다"며 평생 배움과 가르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온 학자답게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24) 기독교사상 표지 이야기(2010년 8월호), 이영란(기독교사상)
<https://c11.kr/xwr9>. 제목은 편집자가 임의로 잡았습니다.

순교자 아버지 서용문 목사

서광선 교수는 올해 팔순의 연세에도 무색하게 건강하게 보였지만, 요 며칠 감기를 앓고 있다. 그는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구소 일로 홍콩에서 일하다가 만 75세로 은퇴를 한 후로 가끔 학교에서 특강을 하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글을 쓰는 일들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글로 정리할 일들이 많았다. 30년 이상 봉직했던 이화여대에서 함께 교수일을 했던 분들 중에 올해 팔순이며 양띠인 남자 교수 대여섯 명이 이대와의 인연을 주제로 글을 써 출판하기로 했던 것이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나만은 서 교수도 이대와의 관계가 살붙이 같아서 그 일들을 풀어 놓으려니 먼 어린 시절로부터, 유학시절, 교수시절 등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평생 가르치면서 글 쓰는 일을 해 왔지만 지난날의 세월을 회고하는 이런 류의 글을 쓰는 일은 정신력과 체력의 소모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지난 일들을 풀고 나니 짧은 회고록에도 기가 빠지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가 6·25 60주년이기도 하지만 서 교수에게는 개인적으로 목사인 아버지가 평양에서 순교를 당한 지 60주기가 된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추모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의 동생들과 함께 10월쯤에 추모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때 형제들이 모여 아버지에 대해 회고하기도 하고, 순교자 가족으로 살아온 애기도 써서 작은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해서 그 준비를 하다 보니 이래저래 몸이 무리가 갔던 모양이다.

1931년 4월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압록강 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로 자주 이사를 다니며 자라났다. 당시 전도사였던 아버지는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그 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다. 하지만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를 짓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곤잘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성격 급한 아버지는 당장 사표를 내고 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덕분에 서 교수는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버지 서용문 목사는 두 돌 무렵부터 고모할머니에게서 자라났다. 항일운동을 한 할아버지가 붙잡혀 사형수가 되자, 할머니는 4명의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했는데, 두 돌도 안 된 그의 아버지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버렸던 것이다. 장성한 그의 아버지는 염소를 치고, 산에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지내다가 관서 원 전도부인을 만나 한글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뒤 강계에 있는 기독교학교인 영실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가 되었던 것이다.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니 교회를 도저히 할 수 없었다. 하여 교회를 그만두고 만포라는 곳에서 잡화상을 시작했는데, 장사는 너무나도 잘 되었다. 당시 서 교수 밑으로 남동생이 3명 여동생이 1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엔 두 끼도 못 먹어 영양실조에 모두 걸리곤 했는데, 장사를 하니 세 끼를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린다고 영실학교

때 교장인 캄부엘(감부엘) 목사를 찾아갔다. 캄부엘 목사는 그의 아버지에게 남한에서 홍수를 당한 농민들이 만주에 많이 가 있으니 거기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산골로 들어가 선교사로 일했다. 그의 나이 10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선교사로 일하면서 심양에 있는 봉천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중 해방이 되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귀향 기차는 서울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식구들을 모두 평양에서 내리게 하고 다시 강계로 올라갔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다시 시작했던 것인데, 공산당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자, 다시 남한으로 내려올 생각을 했다. 하지만 교인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터져버렸다. 전쟁 중에 그의 아버지는 대동강 기슭에서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였고, 그는 대동강 물에 다른 목사들과 함께 떠올라 있는 그의 아버지를 수습하여 교회 뒷산에 묻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서용문 목사의 나이 45세였다.

당신은 이럴 사람이 아니다

서광선 교수는 전쟁이 나자 땅굴을 파고 몇 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잠시 나왔다가, 비행기 폭격을 만난 일도 있었다. 옆에서 같이 달리던 사람들이 포탄을 맞고 쓰러졌지만 용케 그는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숨어 있다가 인민군 징병으로 끌려갔다.

“자넨 아무리 봐도 군대 갈 놈이 아니다.” 신체검사를 위해 작은 방에서 대면하고 있던 생면부지의 인민군 군의관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아픈 곳이 없었고, 다만 땅굴에서 오래 있다 보니 혈색이 창백했을 뿐인데, 군의관은 한사코 기관지염이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그는 목숨을 얻었지만 나오는 길에 마주친 바로 밑의 동생은 그의 말을 듣고 “잘 됐다. 형님은 군대 가면 안 되지.”하는 말을 남기고 신체검사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전쟁통에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피난열차의 지붕에 올라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의 코트 주머니 한쪽에는 성경책이 다른 쪽에는 영한사전이 들어있었다.

부산으로 간 그는 해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소년 통신병에 지원을 했다. 해군은 육군보다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 서울대를 다니다 온 이, 경기고, 서울고 등을 다니다 온 이들과 같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고 ‘강계’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강계가 어디야?” 하지만 그는 당당히 1등으로 붙었다. 그때 사권 친구 중에 신학자인 민경배 교수가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썼지만 침대는 따로 썼는데 겨울날 너무 추워서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서로 친해졌다. 미해군에서는 장교들을 미국으로 보내어 단기간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는 졸병으로는 처음으로 미 동부에 있는 해군기지에 가서 공부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달 간의 훈련 기간 동안 그는 그곳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중 몬타나 주에서 왔다는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직업군인이나 되어야지 하고 대답했더니, 그 친구 말이 ‘넌 해군에서 썩을 놈이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예전 인민군 군의관이 했던 말투여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그는 자신은 중학교를 중퇴하였지만, 저보고는 대학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으면서 자기 고향에 좋은 기독교학교가 있으니 자신이 그곳에 주선해 주겠다고 해요. 아, 그럼 좋겠구나. 그랬지만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입학허가서와 그 동네 장로교회 부인전도회에서 내 재정보증을 서줬다는 편지였어요. 그 길로 유학시험을 치루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제대하는 방법은 전사하거나 상이용사가 되거나 미국 유학 밖에 없다는 말이 떠돌았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자 당장 명예제대가 되더군요.”

그렇게 입학한 몬타나 주의 로키 마운틴 대학은 전체 학생수가 300여 명이 될 정도로 작은 학교였다.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를 나온 교수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는 그곳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인문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장학금은 받았지만 책값이나 용돈이 없었기에 그는 기숙사 화장실 청소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충당해 나갔다. 하지만 힘든 일을 해도 어려운 줄 몰랐다. 전쟁통인 나라에서 건너 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재미있게 지냈다. 온갖 힘든 일들을 하며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말 즐겁고 행복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지내다 교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자신도 열심히 하여 그는 학생 수 3만 명인 일리노이 주립 대학원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또한 들어가자마자 동양인이라며 동양종교를 가르치면 강사료도 주겠다고 제의를 받았다.

사랑의 세례를 입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부인인 함선영 사모와 만났다. 함선영 사모는 이대를 졸업하고 김활란 총장의 비서로 있다가 십자군장학금을 받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웨슬레안 대학교로 유학을 와 있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결혼을 한다면 미국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공부를 마치면 국내로 돌아가 비서직을 계속하기로 김활란 총장과 약속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결국 약혼반지만 교환하기로 했다.

서 교수가 함선영 사모를 만난 일은 살아오는 동안 우연이든 필연이든 변화와 긍정으로 이끌었던 삶에 하나를 더 얹어 주었다.

“대단한 여자다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도 두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그동안의 내 생각들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약혼자를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데, 아마 사랑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서광선 교수는 함선영 사모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근본주의적인 아버지의 신앙태도는 너무 엄격했고, 전도사, 목사 시절, 가난하고 힘들어 영양실조로 인한 폐결핵으로 33세이던 친어머니는 결국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전쟁 와중에 사르트르나 까뮈 등을 읽으면서 실존주의에 심취해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전쟁의 고통과 참혹함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허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 빠져들었다. 철학을 전공하면서 점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존경과 억압을 동시에 주었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자신을 얽매었던 사슬들을 스스로 하나씩 풀어헤치게 만들었다.

“사랑을 하게 되니 인생이 각박한 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철학을 하니까 자꾸 신학 얘기도 나오잖아요? 신의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아버지의 뒤를 한번 이어보자, 신학공부를 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군데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마침 유니온신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쉽게 입학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지요. 교회 전도사였던 어머니는 그동안 동생들 데리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길 했더니, 그동안 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너무 좋아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니 어느 대학을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의 유니온대학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거긴 마귀학교인데...그러면서 거길 갈 수 있다면 프린스턴에 가지 왜 그랬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기도를 드렸대요. 마귀학교에 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하. 그런데 가보니까 확실히 마귀학교더라고요.”

유니온신학교는 하버드나 예일대 등에서 졸업하고 온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는 주립대학에서 온 완전 촌놈이었는데다, 혼자뿐인 한국학생이었다. 그들에게 유니온은 수많은 책들을 읽게 했다. 1학년 1학기에 그는 완전 신신학을 만날 수 있었다. 구약학개론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한 번도 못 들었던 것이다.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건 완전 유치한 소리였고,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다. 120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1학기를 마치자 20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 중 10명은 정신병원에 치료하러 다녔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허물어지니까 그만큼 충격도 컸던 것이다.

“신신학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 놓더군요. 첫 2년은 아주 힘들었어요. 들어가는 과목마다 그동안의 내 신앙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성과 신앙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지적인 신앙과 얼마든지 합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폴 틸리히 교수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얘기지만 ‘상반법’이라는 신학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 죽음에 대한 것, 해방과 구원에 대한 것 등의 그 질문에 해답을 시도하는 게 신학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철학에 빠져 고민해 왔던 거였지요. 하지만 철학과 다른 게 신학은 그 해답을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서가 기본인데, 성서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질문, 실존적 질문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인 것이예요. 제가 고민했었던 실존주의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 해답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개인이 추구하는 것만큼의 해답이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전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연결된다

불트만과 폴 틸리히, 라인홀드 니버...등의 많은 신학자와 유니온의 교수들, 그들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채우는 신앙으로 검증을 하니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해도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 당시는 마틴루터 킹 목사로부터 흑인해방운동이 시작될 때였는데, 신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 그의 룸메이트는 예일대출신으로 홍콩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친구였는데, 흑인교회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다. 서 교수도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흑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데모도 나가고 집회도 많이 다니면서 그는 신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해방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나갔던 것이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면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풀어 주는 자유를 알았고, 당시 60년 대 상황의 미국의 반전운동이나 흑인민권운동 등을 통해 사회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앞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고 실존적 문제 해답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사회전체, 복지, 정치적 문제, 정의의 문제가 모두 사랑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 아닐까요? 니버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랑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독단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로 구현되는 사랑이 바로 올바른 사랑인겁니다. 그 당시 미국 대학생

들이 몸소 겪은 흑인민권운동, 학원민주화운동, 베트남반전운동 등을 통해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사로잡혀 가지고 행동 없는 신학,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다, 하는 그런 것만 봐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지 않았겠어요? 이화여대 교단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가 1969년이었어요. 3선개헌운동을 김재준 목사님 중심으로 반대할 무렵이었지요.”

유니온에서 만난 사람 중에 박형규 목사가 있다. 박 목사는 그가 주말에 흑인교회에 가서 실습을 하고 늦게 돌아오더라도 항상 기다렸다가 동네 피자집에 데리고 가 새벽까지 한국교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서 교수는 박 목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박 목사의 얘길 들으면서 한국에 나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기도 했다. 정말 박형규 목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서 교수가 박 목사를 도운 일도 있었다. 박 목사는 한달 치 장학금을 받으면 그날로 책 사는 데 다 써버리고 저녁밥값도 없곤 했다.

“어느 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박 목사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러다간 나도 고학생인데 둘 다 파산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장학금을 받으면 나의 은행계좌에 넣어 놓고 제가 목사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드리겠다 한 거죠. 처음엔 목사님이 ‘아니 내 돈을 왜 자네가’ 하시더니 나중엔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박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즈음엔 200불 가량이 남기까지 했어요. 그냥 드리면 다 써버릴 것 같아 목사님이랑 같이 시내에 나가 사모님 선물을 샀어요. 지금도 박 목사님은 그때 저 아니었으면 파산해서 한국에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말 씀하시곤 해서 같이 웃기도 하지요.”

또 김활란 총장이 휴식 겸 청강생으로 유니온에 오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60세 이상의 대학 총장은 모두 사표를 쓰게 했기 때문이었다. 김활란 총장은 그와 함선영 사모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를 마치 사위 대하듯 잘해 주었다. 가끔 식사에 초대해서 가보면 드류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박순경 교수가 와 있어 박형규 목사와 더불어 그때부터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배운 대로 행동하다

한국에 온 서광선 교수는 박형규 목사의 소개로 김재준 목사를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제3일>이란 동인지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또 현영학, 허혁, 서남동, 안병무, 유동식 등과 같이 독서회를 했는데, 10년 이상 차이나는 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틈에서 반유신운동과 학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기독교교수협의회를 하게 되었고, NCC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거기서 만난 대부분이 <기독교사상>과 관련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사상>을 통해 세속화신학이나 사신신학, 흑인신학

등을 소개되면서 제임스 콘이나 하비 콕스, 토마스 알 타이저 같은 신학자는 서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강의를 하기도 했다.

“〈기독교사상〉에서 몰트만을 초청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제가 모시고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서회가 종로 2가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파고다공원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몰트만이 보더니 내가 정치신학을 하기 전에 한국에 벌써 정치신학이 있었네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파고다공원을 보면서 3·1운동이 결국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독립운동, 해방운동, 평화적인 비저항운동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동이 되어 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이 말한 정치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치신학을 파고다공원을 통해 마음에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도 나치치하에서 군대도 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생을 했지만 자기경험 속에서만 정치신학을 했는데, 낯선 땅인 한국에 와서 일제하에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한국사람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가졌어요. 그 뒤에 몰트만은 안병무 선생, 서남동 선생, 현영학 선생, 문익환 선생, 문동환 선생 등과 얘기하면서 한국의 민중신학이 몰트만에 의해 유럽에 퍼지게 되고 전 세계에 한국적인 정치 신학, 한국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각하고 만들어낸 토착신학으로 소개가 된 거죠. 물론 그 다리 역할은 〈기독교사상〉이 충분히 해 주었지요.”

유신정권이 물러나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정국은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서광선 교수도 그때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범죄자술서’를 써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어렸을 때의 환경부터 써내려간 그 ‘범죄자술서’는 전화나 회의의 방해 없이 독방에서 찬찬히 자신의 내력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그는 순교자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2주일이 지났을 무렵 형사는 협박을 하며 학교에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는데, 그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자신도 쉬고 싶다는 생각에 사표를 냈다. 그 뒤 아버지가 속한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가 학과목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강남에 있는 현대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현대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하지만 해직교수가 됐다고 하니 왜 이리 유명해져요? 사방에서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현대적이게도 새벽기도나 주일저녁예배, 수요일예배를 하라고 하지 않더군요. 오직 주일 오전 예배만 보는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 설교가 왜 그리 힘드나요? 한 주일에 세 과목씩 9시간 강의도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분 설교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 새벽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대단합니다. 심방가고, 애들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게 진정 목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목회자의 어려움을 느꼈고, 헌신에 대해 감동도 받았어요. 저에겐 그 4년

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복직이 되어 이대로 돌아온 거지요.”

현대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는 설교를 들은 교인들로부터 세미나 잘 들었다는 말을 들곤 했다. 교인도 늘어날 정도로 호응이 좋았지만 물론 그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는 현대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 차선각 목사의 도움을 고마워했다. 현대교회의 전도사로 와서 다른 일로 다니는 서 교수를 대신해 교회 일을 열심히 돌봐주었던 것이다.

“내 둘째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쯤 되었는데, 현대교회 오는 걸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가 복직을 하게 되자 애가 사실 자기는 솔직히 아버지에게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 하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복직이 됐다고 당장 교수로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를 하실 때가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요. 그 소리가 아직 잊히질 않아요. 지금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는 목사 안 되면서 말이죠. 하하.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나왔어요.”

한국기독교, 88선언으로 통일을 향해 가다

80년 광주항쟁은 충격이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미 동부에 있던 언론사들이 동경에 지사를 두고 한국을 찾아와 서 교수의 집으로 많이 드나들었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며 지냈는데, 외국 언론에 ‘인용하기를 꺼리는 모대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이라는 내용이 잘 나오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 교수였다고 한다.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선민주 후통일을 주장하던 기독교도 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했다. KNCC에서 김소영 총무가 되면서 통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거기서 KNCC의 통일백서를 내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협의회가 꾸려졌는데, 정부에선 이를 열지 못하게 방해했다. 모이면 쫓아내고 하여 비밀리에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집에는 2일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정보부에서 찾으란 말을 하고 집을 나서야 했을 정도로 사안이 막중했다. 9명의 기초위원들이 선정되었다. 오재식, 강문규, 김용복, 박종화, 이삼열, 민영진, 홍근수, 노정선, 서광선이었다. 김창락 교수는 나중에 선언문에 성경구절을 넣어 주었다. 총 세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신학, 정치사회, 교회 갱신으로 나누어서 팀별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많이 싸우기도 했다.

“저는 신학부문을 맡았었는데 한국교회의 정치운동은 평화운동이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동북아의 평화 그래서 일본의 침략야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한국의 평화는 이를 수 없다. 이걸 기초로 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것과 전쟁상황을 종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했어요. 분단

극복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치사회부문은 남북교류와 화해, 미군철수,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했어요. 지금도 선도적인데 그걸 1988년도에 했으니 대단했던 거죠.”

1988년 2월 29일 NCC총회에서 통일위원장인 김형태 목사가 낭독을 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다. 바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선언’(88선언)이었다.

88선언에 교계의 반대가 없었던 건 물론 아니었다. 빨갱이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느냐며 이진 비신학적이라는 말들도 나왔고, 미군철수 문제도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미군을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이 땅에서 나가라 하느냐며 배은망덕해도 분수가 있다며 열을 올렸다. 아직도 예상통합에선 88선언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서 교수는 참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88선언에 주목한 것은 또한 정보부였다. 나중에 서 교수가 들은 바로는 정보부장이 국장들을 불러놓고 반정부단체가 만든 거니 잘 읽어보고 연구해서 걸릴 게 있으면 반공법으로 일망타진하라고 명령했다 한다. 하지만 한 달 뒤 국장들은 말했다. “어떻게 교묘하게 썼는지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군철수를 주장했다고 하자, “무조건 철수가 아니라 여건이 허락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국력이 일어나 모든 국제적 여건이 허락될 때 미군은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비핵화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비핵화는 소련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핵무기를 먼저 없애라는 것이 나와 있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장들이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 아주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상 줘야 됩니다.”

서 교수는 정말 우리가 교묘하게 썼는지, 하나님이 보우하신 일인지 몰라도 그때 잡혀 가진 않았다고 한다. 88선언은 서광선 교수가 직접 손으로 작성했는데, 아직도 그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중에 KNCC에서 평화통일박물관을 지으면 거기에 기증할 생각이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이흥구 박사가 통일원장관이 되었어요. 그는 미국에서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88선언이 참 좋은 내용이라며 당신이 썼으니 통일원에 와서 브리핑을 해 달라고 요청해왔어요. 그 내용을 갖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통일부 직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노태우 정권은 7·7선언을 발표했는데, 상당부분 내용상 88선언을 수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 선언문을 기초한 위원들은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물꼬를 텃다는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소

1996년 30년이 넘게 봉직하던 이화여대에서 은퇴하고 그는 유니온에서 2년, 드류대학에서 3년을 가르쳤다. 드류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서 교수는 뉴욕에 있는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재단(UB)의 이사로도 있었는데, UB는 아시아의 기독교대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홍콩에 사무실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고 모든 이사들이 서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했다.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 5년 동안 홍콩에서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대학과 교수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6년 만 75세로 진짜 은퇴를 했던 것이다.

서광선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이 가진 내력과 지혜가 도서관에 쌓인 책들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시간들이 빨리 흘러가는 것에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아직 건강하시니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빌 뿐이다.

한차례 비가 쏟아지고 나서 창밖을 보니 창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거린다. 하늘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구나. 창문에도 땅 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별들이 숨어 있어 빛만 받으면 저마다의 사연으로 반짝거린다.

서광선 교수의 얼굴을 보면 지난날의 어려움이 어느 곳의 주름이 되었는지 찾기 힘들 정도로 환하고 평온하다. 가난하여 폐결핵에 걸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내고 수많은 총탄을 맞고 쓰러진 아버지를 묻으며 통곡했던 일, 전쟁터로 가는 동생을 보내는 먹먹함의 시절들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담아놓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 모든 것들도 아픈 별이 되었을까. 서 교수가 빛이 되어 그 별들을 비추고 있기에 그 별들은 반짝거릴 것이다.

서광선 교수의 빛은 우리나라 신학계도 환히 비추었다. 그 빛을 받아 반짝거릴 신학자들이 어디 좀 많은가. 그리고 그 반짝거림은 불현듯 튀어나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²⁵⁾

서광선

대학교회 새 예배당 강단에 서는 영광과 감격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0년 대학교회 담임목사로 김옥길 총장님의 장례식을 주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는 김옥길 총장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1996년 정년 퇴임하고, 미국과 홍콩 등에서 아시아 신학을 강의하고 아시아지역의 대학을 지원하는 재단의 일을 하다가 귀국해서, 지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움짱 못하고 집콕 방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운재 목사님의 초청으로 역사가 있는 우리 대학교회 새 예배당 강단에, 대학교회 담임목사 직에서 은퇴한지 30 여년 만에 다시 서게 된, 이 감격과 영광,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25) 故 서광선 목사님이 사순절에 남긴 마지막 설교 말씀(2021년 3월 21일, 이화여대 대학교회)
성경본문 : 창세기: 26-31; 요한계시록 21:1-4; 요한복음 13:34-35
출처 : <https://han.gl/CeQiv> YouTube <https://han.gl/iKkBn>

4순절 마지막 주일

오늘은 올해 4순절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나라 수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인간 이하의 고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 exodus, 탈출하게 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광복절과 같은 날, 그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집을 방문하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2:3 마리아의 향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였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초대 받은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순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아름답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온 방 안이 그 향유로 향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향유 값은 요새 값어치로 하면 한달 월급 정도가 아니라 1년 연봉 정도라고 하니 적어도 5천에서 1억 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본다고 했지만, 정말, 한 편의 드라마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 그런 돈이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이런데 허비하느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옥합에 든 향유는 마리아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유대 습관에는 젊은 여인이 간직한 향유는 신혼 첫날 사랑하는 남편의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남편의 장례식에 남편의 시신에 뿌리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발라 드린 것은, 유대 풍습에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 올 때, 그 집

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 집의 종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 전에 집 주인 마리아가 물이 아니라,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직접, 친히 씻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장례를 위해서 말입니다.

12:12 예루살렘 입성...”호산나” 그리고 성전 정화

마리아의 향유로 십자가의 죽음의 준비가 된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로 나귀 탄 예수님의 길을 장식하고,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짖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왕을 환영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가시 면류관의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먼저 유대교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의 영혼인 성전으로 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단독으로 요새 말로 “테모” 시위를 하신 것이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난동을 부린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 2:14)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요한 2:15,16)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마태11:13; 마가11:15-19; 누가 19:45-48) 성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은, 요새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야단치고 “가나안 교회”라고 교회에 안나가,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단독 혁명 행동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친 로마 어용 종교 세력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릇 유다와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13:4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마다 읽고 듣고 설교하는 이야기이고 또 그 유명한 만찬 그림으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가 1491년 2년 동

안에 걸쳐 그렸다는 그림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 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찬식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1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는, 4절에 가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란 베드로가 손사레를 치면서 “절대로, 내발은 안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극구 사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예수님은 거의 험박 조로 베드로의 발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의 발을 벗으라고 하고 발을 내 놓고 씻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꼭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여름 학교 강사로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개강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신학대학 교수들이 강대 앞에 줄을 서서 학생들과 외래 강사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발을 벗고 교수님들 앞에 내 발을 내 놓을 자신이 없어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미국 친구들끼리나 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옆에 앉아 있던 미국 친구 교수가 내 팔을 꼭 붙들고, 강대 위 의자로 끌고 갔습니다. 내 앞에는 여자 교수 한 분이 대야 앞에 앉아서 내 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의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그 순간, 베드로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셔야 해?”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면, “내가 뭘데, 이 미국의 저명한 여자 교수가 내 발을 씻는담?” 내 발을 여자 교수 앞에 내미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 존재 전체를 내놓는 것 같아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내 두 발을 대야 물 속에 넣고, 교수님이 내 발을 정성껏 씻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내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서 나는 눈물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13장 12절을 읽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것을,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사랑의 빛을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갚으신 것입니다.

13:21-28 사랑하는 제자와 가룟 유다, 떡 한조각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식사 자리에 다시 앉으셨지만, 마음은 몹시 불편하셨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심령이 몹시 괴로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둘러 보면서 누구지,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아야? 하며 수근대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군지 예수님에게 여쭙어보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게 누구지요?”하고 질문했습니다. (13:23-25)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자다.” 하시고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건네 주었습니다. 뻔뻔스럽게 그 떡을 받아 먹은 가룟 유다는 “내가 할 일을 어서 속히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13:26-28)

13장-17장: 예수 어록: 아가페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예수님은 유언 같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17장 까지 하십니다. 간단히 말씀의 제목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말씀, 유언은 이 한마디, “새로운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10절)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2-13)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긴 기도 끝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사람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27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는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명,”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19: 25-27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흘리며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들을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가지 말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19:26) 그리고는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19:27)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 집안의 양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동생처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한사람으로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요한의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봉독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사랑의 복음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1-12)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17,18)”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 장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

나눔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1서 4:20,21: 공동번역)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노동자들을 말로만, 가족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뿌리고 닦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서, 우리 일터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에는 정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제자들 중, 베드로 보다, 도마 보다, 사도 바울 보다 더 오래 장수했다고 합니다. 교회당에 나타나게 되면, 교인들이 요한의 축복을 원한다고 단위에 모시고, 요한의 축도를 원했다고 합니다. 너무 연로한 나머지 기력이 없어 두 팔을 혼자 들 수 없어서,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양쪽 팔을 들어 올려 드렸다고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 마디, 있는 힘을 다해서, “마라나타...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큰 소리로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니라.” 요한계시록: 21:1,3,4.)

2천 년 전, 연로한 요한의 비전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을 덮으며²⁶⁾

서광선

책을 마무리하고 덮으려고 한다, 그냥 말없이 덮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어떤 노랫말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수도 없지 않은가.

너무도 신나고 기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너무도 불안하고 무섭기까지 하다. 바로 내일, 2018년 2월 9일,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다. 북한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동해에 배를 띄우고 남한의 묵호항에 도착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메달을 향해 함께 연일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온 세계의 90여 나라에서 3천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KTX 열차를 타거나 영동고속도로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올림픽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본다. “우리는 올림픽이 무사히 끝나고 화기에애하게 그리고 모두 건강한 몸으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귀한 손님들과 만나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과 이산가족 노인네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형제 자매된 민족의 정을 나누고 통일된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폭탄과 미사일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이 사람들

26) 서광선의 정치신학 여정,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한울, 2018), 383-387.

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일편단심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도우면서 실로 공생공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게 하시옵소서. 평창 올림픽을 찾아온, 미국 정치가들과 일본 정치가들 그리고 중국의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촛불 민주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4.19와 5.16 그리고 5.18을 겪고, 1987년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유린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의 빛을 받았다.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다. 우리는 승리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학생들과, 전태일과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기독교 지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정치에 참여해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치는 불의하고 포악한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였다. 법적, 도덕적 정당성 없는 권력을 남용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민주주의 파괴의 정치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고 종교와 양심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권에 대해, 예언자적 발언을 하고 저항하는 하나님의 정치에 참여 해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은 하나님의 혁명이었고, 하나님의 정치의 승리였다.

촛불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 역사 창조의 길이다. 흑자는 말하기를 촛불혁명까지의 민주화 운동은 저항적이었지만, 촛불 이후부터는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실현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긍정적인 정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고 포악한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불의한 정권과 맞섰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는 포악한 권력과 싸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맨손으로 폭력경찰과 군인 앞에서 평화를 외쳤다.

우리는 촛불 이후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정권이 되도록 감시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

다. 촛불로 새로워진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법을 집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게 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면서 “헬조선”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은 젊은이들이 인간 대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 여성들이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친 것은 인간 대접을 받으며 평등하게 사랑과 정의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서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핵폭탄이 필요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북한 권력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핵 강국 모두에게 보내야 한다. 핵 없는 세계,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유라시아 대륙, 핵 없이 평화로운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되어야 한다. 핵폭탄과 원자로는 하나님나라의 적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우리의 노동이 자연을 파괴하는 생명 파괴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며 살아가는 제2의 에덴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이나 성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치를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다. 예수의 선교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 세상에서 펴는 것이었다.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 나서 한 첫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1:15)”였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나라의 정치적 사명을 천명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19).

예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그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계 21:3,4).

하나님의 정치는 희망의 정치이다. 하나님나라를 희망하는 정치,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지키고 키우고 보듬는 마음의 정치이다. 희망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희망으로 성숙한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 22 : 20).

YMCA, 평화 바이러스 제작소²⁷⁾

서광선

“그 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미가 4:1-5)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

27)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창립예배 설교문(2015. 7.25. 철원제일감리교회)

무서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2)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14-16)”

인사

한국 YMCA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조금 만 더 가면, 휴전선 철조망이 보이고 중무장한 우리 군인들과 기관총이 달린 전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곳, 휴전 상태인지 전쟁 상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도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다짐하는 “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출범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 감동과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로 치하하고 싶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80이 넘도록 살아남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일제 강점기 세대에게는 일제 강점 36년은 분단 70년의 우리 민족의 비극에 비하면 오히려 짧은 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제 36년, 그리고 분단 70년. 우리는 일제 식민지 노예 생활 36년을 채 청산하지 못한 채, 한반도의 허리가 동강나고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노예 생활 70년을 죽지 못해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피로 물 든 이 철원의 백마고지에서 깊은 밤 마다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과 미국과 유엔의 이름으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달려온 피부 색깔이 다른 젊은이들의 피눈물 나는 통곡소리로 들립니다. 3년 동안을 피 터지게 싸우고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62년 전 내일 모래, 무기를 내려놓고, 전차들을 세우고 전쟁을 중단하고 쉬자는 약속을 하고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증오, 분노와 복수의 아우성이 소름끼치는 이 휴전선, 전쟁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꿈꾸고 협력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눈물 나게 기쁘고 감동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YMCA의 전통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운동협의회 출범을 위해서 모인 것은 우리 한국 YMCA의 역사적 전통

을 이어 받아 미래를 향한 헌신을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20세기가 전쟁으로 동 트고 물들고 있고,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대륙에 전쟁의 야수를 뺏어 한반도를 삼키고 있을 때, 한국 땅에 들어온 YMCA 기독교 청년 운동은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가슴 속 깊이 품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3.1 민족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 안보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 한국 YMCA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투쟁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 통일은 분리할 수 없는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하 자주 독립운동에 이어,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거쳐, 이제 우리 한국 YMCA는 분단 한국을 넘어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해 한 거름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YMCA는 작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조국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달성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문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명기했습니다.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우리 한국 YMCA의 역사적 선교적 사명을 온 천하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감동으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시대에 화해와 사랑을 말해야 하고, 분노와 복수의 담론을 거역하고 용서와 포용의 담론을 시작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휴전선에 와서 평화를 준비하고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시대에 통일을 말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온 천지를 뒤 덮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와 희망을 외친다는 것은 무섭고 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군사 문화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 거스르는 반문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메르스 왕관 바이러스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 묵은 분단 바이러스는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 바이러스는 70년 동안 우리나라와 우리 몸과 마음을 온통 병들게 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DNA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분단 바이러스는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바이러스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를 진보다 종북이다, 친미다 보수다 하면서 진영논리로 서로를 헐뜯고 평화 이야기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만 하면, 종북이라고 하

고 좌파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분단 바이러스는 증오와 공포와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분단 바이러스와 전쟁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항체, 평화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 한국 YMCA가 평화 바이러스를 만드는 평화 바이러스 제작소가 되겠다고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 바이러스는 상처 투성이 한반도를 치유하는 것이고, 온 아시아 대륙을 치유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88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NCC는 19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는 바로 그해 88선언이라는 평화통일 문서를 만들어 온 천하에 밝혔습니다. 평화 바이러스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첫째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평화 이야기를 국정원의 해킹 방해나 억압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협정에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군축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년 전 우리는 소리만 크게 냈지, 88선언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8선언을 행동으로 운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통일 전문가들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한 젊은 독일 학자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 통일이 갑자기 준비 없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20년이 넘게 평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얻은 것이 독일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학자는 독일이 통일 되었을 당시 15살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독에 살면서 동독의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편지 교환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동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편지를 교환하는 동안 동독의 펜팔 친구를 직접 만나러 동독에 여행도 다녀오게 되면서 통일을 생각해 보고 이를 위해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자가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YMCA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남한의 목사님들, 특히 YMCA 지도자들이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과 꽤 자주 만나는데 평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북의 젊은이들과 편지 왕래도 하고 YMCA가 주최하는 남북 축구대회나 농구대회

를 열면서 왕래하고 교류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북으로 보낸 자전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로 와서 남 쪽 산과 바다를 함께 달리는 모임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을 행동으로 몸으로 운동으로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 미가의 말씀처럼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운동 목표입니다. 분단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안보 바이러스, 우리 군대를 비리와 부패로 병들게 하고 있는 군비 바이러스를 평화 바이러스로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전쟁 바이러스와 싸우고 분단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가시밭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죽은 것 같지만, 보시오, 살아 있소²⁸⁾

서광선

존경하는 서삼석 국회의원님, 박우량 신안 군수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권진관 박사의 초청장과 축사 부탁을 받고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민중신학이 드디어, 아니, 마침내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니, 그렇게 천대받던 “민중”이란 말이 국회의원 강당에서 큰소리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니... 확실히 세상이 변했구나, 우리 국회가 변했구나... 그 옛날, 서남동 목사님이 좋아 하시던 송대관의 노래, “짹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 노래가 저절로 들려오는 것 같고, 여기서 함께 불러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서남동 목사님을 기리고 한국의 민중신학이 50년 만에 온 세계를 돌고 돌아, 드디어 “짹”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한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민중신학도 “죽은 것 같지만, 보시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소?”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서남동 목사님이 서울YMCA 호텔 방, 우리 신학자 몇 사람이 신학 공부한다고 모여 있는 자리에 뛰어 들어오시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전태일, 전태일이 분신했어요. 정부는 노동법을 지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박정희 군사독재의 초고속 경제성장 드라이브에 시달리는 어린 공장 노동자들의 고통과,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중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부와 경찰과 검찰은 “민중”을 말하고 민중 편을 드는 대학생들과 교수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언론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용교수들 가운데는 “민중”을 말하는 놈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친북, 친공, 반미주의자들이라고 공공연히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민”은, 북조선에서 말하는 “인민”이고, “중”은 “대중”의 “중”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란 말은 북조선에서 말하는 “인민대중”을 말하는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민중”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조선시대 말, 일본제국주의가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독립신문”을 보면, 사방에 “조선 민중”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중, 특히 한국 민중을 말하는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민중이고, 민중이 바로 오늘의 예수”라는 말에 민중신학자들, 민중 예수를 말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렇게 천대를 받았고, 탄압의 대상이었던 민중신학이 오늘, 국회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님이 고향 땅에 “영웅,” 아니, “위인” 혹은 “성자(聖者)”로 추대되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념관을 세우게 된다니, 이런 변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에 그렇게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 폴 티리히에 라인홀드 니이버 같은 신학자들이 많은데도 그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다는 말을 못들어 봤습니다. 다만 흑인해방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과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공휴일로 제정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모르긴 해도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의 동상이나 기념관으로는 서남동 목사님이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성서를 보면,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기는커녕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누가 4:24)“고 하셨더니, 고향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향 동네 밖으로 끌어 내 (누가 4:29)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서남동 목사님은 자기 고향 땅 신안군에 기념관 까지 모시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된 것, 놀랍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서남동 목사님과 한국의 민중신학 기념학술회가 국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민중신학자들과 민중신학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중의 대다수 거룩한 표를 받아 민중을 대변하고 민중을 위해서 일하고 법을 만들고 민중의 국회가 되겠다고 말로만 떠들 뿐, 일단,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면, 대다수 민중을 위한 법률안은 무시해 버리고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극소수 권력자들과 부자들 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중 편에 서지 않는 국회의 대접을 받는 민중신학은 권력과 함께 타락하기 쉽습니다. “권력은 타락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라는 경구를 우리는 통렬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하면서, 동시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재앙과 기후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을 감히 망각할 수 없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감 하겠습니다.

28) 성서본문 : 고린도 후서 6:8b,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던 ‘죽재서남동의 민중신학과 민주화 운동 재조명’ 세미나(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주관) 축사(2021년 11월 18일(16시~18시))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기독교²⁹⁾

서광선

어린 시절, 나는 목사 아버지의 집안 자랑을 자장가로 들으며 잠들었고, 항일 조선의 아들로 성장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이야기와 아버지의 어머니, 즉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 나의 할아버지는 조선조 말기 을사늑약 이후 조선 군대가 해체되고 무장해제 되던 때, 함흥지방 무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한다. 조선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체되자, 할아버지는 의병을 소집하고 의병대장으로 일본군과 싸웠다는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다.

“너희 할아버지는 의병대장이셨는데, 칼을 잘 쓰셨단다. 말 타고 달리면서 단 한칼에 일본 군인 목을 다섯 개나 떨어뜨렸단다...” 이 무용담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들은 “와 대단하시다” 하며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한칼에 일본 군인 5명의 목을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버지는 이어서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의병대장이던 할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함흥 감옥에서 사형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비 없는 새끼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조선 의병대장 장군의 아내답게 자결할 결심을 하고, 아버지 형들을 차례로 독약을 먹이고 자신도 자결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살이 좀 넘은 아기까지 죽일 수가 없어서 혼자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천애고아가 돼 버린 우리 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발견돼서, 평안북도 산골에 사시는 고

모 할머니 댁에 보내졌다는 것이다. 우리 고아 아버지는 평안북도 두메산골에서 자라면서 험한 산속에서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 목동 소년인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얇은 책 한권을 꺼내 들고 “너 언문(한글) 읽을 줄 아니? 글 읽는 것 내가 가르쳐 줄까?” 하는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말로 번역된 마가복음 한 권을 인쇄해서 ‘쪽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작은 책자를 들고 다니며 팔기도 하고 그냥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원해서 ‘쪽복음’을 들고 다니는 전도인들을 ‘판서원’이라고 불렀다.

호기심에 파고들기 시작한 쪽복음으로 한글을 뎀 양치기 소년 아버지에 놀란 판서원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강계라는 소도시에 데리고 가서 미국 선교사가 세운 영실학교에 입학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거기서 미국 선교사 감부열에게 세례를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평양신학교로 진학하셨다. 고학생 아버지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압록강 근처 시골 동네를 전전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웠다.

내가 소학교에 입학한 해인 1937년, 일본 군대가 중국 청도에 쳐들어가던 해부터인가, 아버지 교회 동네 경찰들이 아버지 교회에 찾아와서는 동네 뒷산의 일본 군대 귀신을 모신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고 참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가곤 했다. 그러더니 조선 사람은 모두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 하라는 것이었다.

소학교에서도 모든 과목을 일본말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은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이다. 우리 조선 사람도 일본 황제의 귀여운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면, 일본 국기게양대 앞에 서서, “우리는 일본 황국의 백성입니다”라는 ‘황국신민의 선서’를 소리 높여 서약하고 동쪽을 향해 돌아서서 90도 허리를 굽히는 절을 해야 했다. 일본 ‘천황’이 사는 일본 수도 동경을 향해 아침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학교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학교를 나오기까지 하루종일 그 서툰 일본말로 공부하고 일본말을 ‘국어’라고 배워야만 했고, 산수도 과학 과목도 조선인 선생님이 그 서툰 일본말로 땀을 흘리며 가르치셨다. 학교 안에서 우리말을 하다 들키면 일본인 교감선생의 무서운 벌을 받아야만 했다. 때로는 일본인 교장이 차고 있던 일본도를 뽑아 들고 위협하기도 하고, 칼등으로 등이나 허리를 치면서 헐박하기도 했다.

교회 전도사 아버지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야훼 하나님 하고 우리 일본 천황 하고 누가 더 높다고 교회서 가르치시요?” 하는 질문에 우리 전도사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쳤다. “그게 무슨 질문이요? 당신들의 천황이란 사람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유일한 최고의 신이요.”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일본 경찰 앞잡이 조선인 경찰의 몽둥이 세례를 받고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

29) 2019.10.29., 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https://c11.kr/xwss>

어 교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시곤 했다.

조선인 경찰관이 아버지 교회 뒷좌석에 들어와 앉아 아버지 설교를 '검열'하고 있는데도, 전도사 아버지는 해방자 모세의 이야기를 신명나게 하시면서, 조선도 이제 곧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묵시록의 예언이라고 힘있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주일이 지나 월요일에는 아버지는 경찰서로 끌려 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경찰들에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귀가하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항일 전도사 아버지는 일본 경찰의 폭행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온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기로 결심하셨다. 조선에서 땅을 뺏기고 일본 경찰에 쫓기어 만주로 피난 온 농민들을 위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아버지는 시작하셨다.

1941년은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 하와이 섬을 공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해였다. 만주에서 시작한 아버지의 작은 교회에는 조선에서 도망친 농군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집에는 이화여전 등에서 공부하다가 일본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만주로 망명해 온, 올 데 갈 데 없는 여학생들이 모여들기도 했다. 그 중 한 학생은 내가 다니던 조선인 소학교 선생으로 부임해서 나의 학년 담임선생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강제로 일본 사람으로 세뇌하고 강제로 일본 이름을 가지게 하고 일본말을 우리말처럼 하게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교회에서 성경책으로 한글을 읽게 하고 집에서 우리말로 된 동화책을 읽게 하셨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김동인의 역사소설, 이광수의 소설, 박계주, 이태준 등 농촌운동 소설들을 읽게 하셨다. 교회 젊은이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찾아가 한글 야학을 했다.

한국과 만주에서 기독교회는 3.1 독립운동 이전이나 이후 항일자주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전진기지였다.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동방요배라는 우상숭배를 거절했고, 일본말 성경을 거절하고 조선말 순한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말로 설교했다. 일본 정부는 교회에서 성경의 일부는 봉독하거나 설교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가령 출애굽기와 다니엘서 같은 항일운동을 시사하고 선동한다고 판단한 책들은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까지 감시하고 금지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 총독은 미국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선 청년들-전 동학군, 전 의병들이 모여들어 조선 독립을 논하고 독립운동하는 등 정치운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면서 미국식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 선교사들은 그로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조선의 기독교를 '비정치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는 1910년의 105인 사건으로 한국YMCA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애국 지성인들이 수난을 당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주도한 3.1 독

립항쟁이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항일투쟁의 역사가 있고, 따라서 친일을 말할 수 없는 확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항일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한 '민족교회'의 역사가 있다.

만주에서 일본 군수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들 가족을 위한 일본인 중학교에, 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다. 우리 가족이 살던 고장에는 한국인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 중학교에 어렵사리 입학했지만, 항일 전도사 아버지는 내가 일본말은 일본 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일본 아이들보다 일본을 더 잘 알아야 하고, 일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나를 일본 중학교에 밀어 넣다시피 하셨다. 1945년 8.15 해방되는 해에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나는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과 일본YMCA와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초청으로 일본의 교회와 대학 등에서 설교도 하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설교나 강연할 때마다, 일본 주최측에서는 영어로 하면 일본 말 통역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나는 꼭 일본말을 고집했다. "당신네 조상들이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강요했는지,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이 얼마나 야만적이었고, 한국 민족 말살정책이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일본말을 고집했다.

나를 대하는 일본인 목사나 신학자 학생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진심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일본 정부의 죄과를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교수들과 목사들과 젊은 학생들이 많았다.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는 진정성을 느끼고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말했던가. 그의 초기 작품 제목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생각이 떠오른다. "도덕적 일본인, 제국주의 침략과 조선 식민지 탄압과 착취 정책을 사죄하는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부도덕한 일본 정부, 일본인 집단 지성과 정치인들"이 있다.

제2차 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지 70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일본 제국은 다시 '대동아공영권(Asian Commonwealth)'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모처럼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다.

다시 우리는 아시아 침략을 꿈꾸는 일본의 반동 정권과 집단지성을 경계하게 되었다.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분단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핵 없는 한반도,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고 지켜야 하는 한국 기독교가 일본 제국주의 망령과 싸우기 위해서, 1919년 3.1 혁명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심적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응답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용서의 순간, 은혜의 순간³⁰⁾

서광선 박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국가가 되기 전, 중국과의 북쪽 접경 지역인 강계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목회자가 된 서박사의 아버지는 일제의 침략에 거침없이 저항했고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은 일제 말,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서박사의 아버지는 “너는 제국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면서 서박사를 일본 중학교에 진학하게 했다. 일본 학생들로 가득했던 교실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서박사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일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서박사는 애써 기쁨을 숨겼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함께 독립의 기쁨을 만끽했다.

일본이 한국에서 물러난 후, 서박사와 그의 가족은 고향인 강계로 돌아갔다. 1948년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후 그의 아버지는 공산당 정권을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당시 공산당 정권에 협력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조직되었고, 그의 아버지도 연맹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조그련의 적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골적인 언행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이를 피하고자 서박사의 가족은 더 남쪽인 평양으로 이동했다. 일본이 항복

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에 진주한 뒤 5년 후, 1950년 6월에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박사의 아버지는 실종되었다. 당시 19살이 되었던 서박사는 아버지의 소재와 안경을 염려하는 동시에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걱정해야 했고, 그와 그의 동생은 집 마루 속에 숨어 지내야 했다. 잠시 마루에서 나온 사이 징집기관에 붙들려갔지만 닥친 이의 도움으로 전장에서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1950년 8월, 마루 속이 답답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온 사이 그는 군에 붙잡혔다. 트럭을 타고 신체검사장에 끌려가 군의관을 만나기 위한 줄에 섰는데, 놀랍게도 군의관이 “너 어디 아프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박사는 당시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설명하며, “그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네, 아픕니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군의관이 ‘아니, 너 아프다.’ 하면서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난생 처음 본 사람이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군의관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답을 찾자면, 하나님이 도우신 걸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서박사는 신체검사 줄을 떠나 걸어 나왔고 같이 붙잡혀온 남동생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동생은 “형,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 전쟁에 끌려가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했고, 서박사가 동생에게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보여주자 동생은 “그래, 형은 군대 가면 안 되지. 내가 대신 갔다 올게.”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동생을 보지 못했다. 서박사는 이 일을 통해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나를 살리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서박사는 이 질문을 평생의 질문으로 삼아 겸손히 생각하고 긴 세월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그의 가족은 드디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동강 강가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다는 전갈을 듣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다른 네 명의 목사들과 한 밧줄로 묶여서 총살당한 아버지의 시신에는 총알 자국과 찢자국이 가득했고, 서박사는 아버지 시신을 안고 분노하며 강한 복수심을 품었다고 한다.

그 후 서박사는 남으로 떠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다. 입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미국 해군에서 만난 친구의 조언으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마칠 무렵, 서박사의 친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음 계획을 물었고, 서박사는 한국 해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는 “아니, 너는 해군 타입이 아니야. 학자 타입이야.”라고 말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서박사는 몬타나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다. 서박사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962년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

30) 2021년 2월 4일, 서광선 박사(은퇴목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NCCK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글로 협력선 교사 커트 에스링거(Kurt Esslinger) 목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인터뷰는 그리스도연합교회/제자교회 세계선교국 주최, NCCK 화해통일위원회 협력으로 인터넷세미나를 통해 방송되었다. 서광선 박사는 1931년 생으로 현재도 여전히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다.

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본회퍼의 옥중서한들을 읽고, 워싱턴에서 시민권 운동을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 듣고, 신학생 친구들이 시민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태도와 복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신학적으로 시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원수를 갚는 것과 용서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온 그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인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친미주의의 이름으로 독재에 반대하는 노동자, 학생,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을 탄압했다. 서박사는 “아버지는 공산정권에 저항하여 싸웠고,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북에서 순교하셨는데, 여기에는 소위 민주적 독재자가 있다 공산주의 독재자나 자본주의 독재자나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하며 모든 독재에 저항한 아버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그때 서박사는 NCK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며, 1980년 이화여대에서 해직 당한 뒤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참여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계기로 1991년 서박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모임에 NCK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오랜 원수인 조그런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북측 대표단의 수장은 서박사와 같은 나이로, 아버지의 원수인 조그런 설립자의 아들이었다. 서박사와 조그런 대표는 둘 다 캐나다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WCC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연을 맡았다.

서박사는 당시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날 밤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쪽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원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임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남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서박사님, 제가 하는 강연을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역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며 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주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어서 체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 대표들과 의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한국에서 함께 온 친한 대표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돌아왔으면서 ‘그건 서박사가 알아서 해야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무 도움도 안 되더군요!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복수냐 용서냐 그때 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원수 갚는 최선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강연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남쪽을 대표하여 내 강연을 발표했습니다. 북에 있는 적을 도왔으니 법에 걸리겠구나 싶었지만,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은혜의 순간,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기회의 순간 같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자유롭게 북에 대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4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300명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조선 민족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하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화 통일운동에 평생 헌신한 서광선 목사³¹⁾

남과 북, 만주와 미국을 넘나들며

그는 오랫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서광선 목사는 학계와 종교계, 사회활동을 넘나들며 국내외에서 폭넓은 족적을 남긴 원로 학자다. 1970년대 이후 사회참여적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박정희 유신정권과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다 대학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기도 했고, 세계 YMCA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단체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서광선 목사의 후반기 인생보다 더 흥미로운 건 마흔 살 이전까지 전반기 생애의 궤적이다. 시대의 격변에 따라 수없이 많은 이주와 유랑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2면에 게재한 ‘서광선 목사의 인생 여정’ 지도는 고스란히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의 축약도다.

우선 공간적 이동경로를 따라가 보자.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한반도의 북쪽 끝자락 평안북도(현재의 행정구역은 자강도) 강계에서 가난한 시골마을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 서광선은 압록강변 국경도시 만포에서 잠시 살다가, 만주 서부지역 공업도시 본계호로 이사를 해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곳에서 해방을 맞은 소년 서광선은 다시 아버지를 따라 고향 강계로 돌아왔다가, 평양에서 6·25 전쟁을 맞는다.

평양에서 아버지를 잃고 동생과 헤어진 열아홉 청년 서광선은 피난행렬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 군에 입대한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건너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귀국 후 서울에서 대학교수를 하며 인생의 후반기를 보낸다. 실로 국경의 끝과 끝은 물론, 남과 북의 중심도시 평양과 서울,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드넓은 만주별관과 미 대륙의 여러 지역을 넘나드는 파노라마적 이동 궤적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폭력이 남긴 마음의 상처

서 목사가 각각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체성이 변모해 온 과정 역시 거시적 역사가 한 인간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모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소년 서광선은 학교에서는 일제의 황국신민 교육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목사 아버지에게 근본주의 신앙과 민족의식을 교육받으며 자란다. 해방은 그에게 짧은 기쁨을 선사했지만, 곧이어 공산치하가 된 북녘 땅에서 목사 집안인 그의 가족은 또 다른 탄압을 받게 된다. 6·25 전쟁 중 아버지가 공산군의 총에 죽자 청년 서광선은 분노로 가득 찬다.

이후 피난지 부산에서 군 통신병 시험에 합격해 입대를 하고, 기회와 동경의 땅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기독교와 반공, 승미가 한 몸뚱이로 작동하는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성향은 북한 서북지역 출신 실향민 다수가 품는 강렬한 내면의 정초이기도 하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여전히 반공과 친미 기독교에 기반한 보수 우익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광선 목사는 이러한 편향된 이념의 족쇄에 자신의 나머지 삶을 마저 내 주지 않았다.

신학 공부하며 이념의 굴레 벗다

서광선 목사는 유학 기간 중 다양한 철학과 현대신학을 접하고, 비로소 세상을 규정짓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증오와 분노를 넘어서는 평화의 염원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험악한 공산정권의 폭력을 경험했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완고한 보수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의 내면에 소리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그는 자신의 삶과 근현대 한국 기독교 정치사를 아우른 책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한울아카데미)를 세상에 선보였다. 책 서문에서 그는 “한 많은 분단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너

31) 고양신문, <3월에 만난 이웃(2019.02.23.)>, 유경증기자 <https://han.gi/EWFdu>

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가?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답이며 나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열아홉 청년시절 아버지의 주검을 수습하며 독기처럼 품었던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는 결심을 평생 화두처럼 붙들고 살았다고 고백한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뭘까. “진짜 원수를 갚는 길은 결국 세상의 모든 미움이 녹아지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는 서광선 목사의 눈빛이 한없이 평화롭다.

아흔을 바라보는 서광선 목사는 최근 오랫동안 소망했던 평화의 꿈이 선물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며 마음이 설렌다고 말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난답니다. 이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평양에 찾아가 70년 만에 성묘도 하고, 북한의 교인들 손을 잡고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남과 북이 함께 꿈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올해 89세인 서광선 목사는 시종 남다른 기억력과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역사의 고비마다 뜻밖의 기회가 나를 살게 했다

일제시대,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전도사의 아들로 자랐다. 소학교 시절 기억을 들려 달라.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펼치며 군국주의로 치달던 시절이라 학교에서는 무척 엄혹한 황국신민화 교육을 했다. 창씨개명과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내면까지 온전한 일본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야기를 들으며 일제는 언젠가 망하고, 조선 해방의 날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다졌다. 물론 그 때 우리 가족이 상상한 해방은 ‘천사의 나라’ 미국이 가져다주는 해방이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한글 성경과 조선 작가들의 소설, 영어공부 등을 익히기도 했다.

가족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심양 근처로 이사했다.

만주라고 해서 상황이 좋을 리 없었다. 고향에서 농토를 잃고 떠난 유랑민들의 삶은 비참했다. 만주 괴뢰정부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수탈은 여전했고, 하루아침에 3등 국민으로 전락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향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 숨죽인 채 항일의지를 서로 독려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았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천황의 항복 소식을 라디오로 듣는데, 일본인 선생이 통곡을 하자 아이들이 덩달아 훌쩍이기도 했다. 나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오니, 감격에 찬 아버지가 어서 짐을 챙겨 조선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우리 가족들은 일본땅에 떨어진 원자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굳게 믿었다.

다시 압록강변 강계로 돌아갔다. 북에서의 삶은 어땠나.

압록강을 넘어 평양과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야 한다며 평양역에서 내리라고 했다. 3.8선 북쪽은 소련군과 공산당이 장악하던 때였기에, 목사 가족으로서의 운명을 가른 선택이 되고 말았다. 해방이 됐지만, 북쪽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엄혹한 시절이 닥쳤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버텨낸 북쪽 기독교인들의 근성도 만만찮았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는 반공집회를 방불케 하는 설교와 예배가 반복됐다. 그러니 김일성의 눈에 교회가 눈엣가시였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 안 가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됐다. 인민재판과 즉결처분의 흉흉한 소식이 난무했다. 지금 돌아보면 기독교가 강했던 북쪽과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남쪽 모두 정반대의 정권이 들어서며 결과적으로 너무도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고 말았다. 당시 남쪽 민중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에서는 이승만이 더 인기가 많았다. 이진 어떤 사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세를 앞세운 지배자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지도자에 대한 선망으로 표출된 게 아닐까.

6.25 전쟁에서 동생과 헤어지고 아버지를 잃었다.

신체검사에서 운 좋게도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오다가 동생과 마주쳤다. 그 때 나는 20살, 동생은 16살에 불과했다. “잘됐네, 형은 군대 가지 말아야지”라고 말했던 게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후 70년이 지나도록 동생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 아버지도 어느 날 공산군에 끌려가더니 돌아오지 않으셨다. 국군과 미군에 의해 평양이 탈환된 후, 대동강변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줄에 묶여 총을 맞고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교회 뒷산에 아버지를 묻으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눈

물도 나오지 않았다. 원수를 꼭 갚으리라는 결심을 곱씹으며, 피난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화물칸 지붕에 피난민들이 빼곡하게 매달려 오는데, 힘 없는 노인과 아이들이 기차에서 떨어져 죽는 참상을 목도해야 했다. 도대체 나는 살아 무얼 하려고 이 기차 지붕에 앉아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부산 피난시절 군에 입대해 진해에서 군생활을 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해군통신병시험에 응시했는데, 운 좋게도 합격을 했다. 심지어 잠시 미 해군에 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어졌다. 그 기간에 만난 미군 친구가 또 한 번 내 삶의 기적을 선물해줬다. 자신의 고향 근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준 것이다.

처음에는 철학을, 이어 신학을 공부하며 넓은 세상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이 시기 나는 여전히 치열한 진통을 겪고 있는 조국의 역사와 정치상황에 무관심한 방관자였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 친구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줬다.

미국에서 폭넓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철학공부를 하며 비로소 학문의 깊고 광활한 세계에 눈을 떴다. 이어 정통 보수신학을 하지 않고, 뉴욕 유니언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을 접한 것도 큰 행운이었다. 라인홀트 니버, 폴 틸리히 같은 행동주의 신학의 석학들이 스승이었다. 그동안의 원리주의적 신앙을 벗고, 역사와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사회변혁에 참여하는 신앙관을 갖게 됐다. 마침 미국 젊은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자유주의 물결도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젊은 정치인 케네디가 몰고 온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에 이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월남전 반대의 물결 등을 경험하며 자유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내면 깊이 새겼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진보인사 중 한 명이다.

한국에 돌아와보니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다. 뜻을 함께하는 교수들

과 공부도 하고,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시국선언 등을 이어갔다. 각 대학마다 문제교수 명단이 작성돼 총장에게 해직 압력이 들어왔는데, 나는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이 버팀목이 돼 줘 해직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5.18이 터지고 유신 정권보다 더 지독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어김없이 운동권 교수로 찍혀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신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빨갱이로 만들려고 했지만, 평양에서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한 순교자의 자녀라는 신분 덕분에 빨갱이 누명은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직은 먼치 못했고, 4년 동안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아버지는 공산군에 저항하다 죽었는데, 아들은 반공 우익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독재적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공산정권이나 남한의 독재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악 아닌가. 나는 내가 견지해 온 남한에서의 기독교 민주화 운동이 아버지의 저항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반공과 숭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보의 가치를 가로막는 모습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겠는가.

해외에서 북쪽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남과 북 기독교 대표가 함께하는 국제 모임에 참석했는데, 북측 수석대표가 어릴 적 아버지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친 김일성 정권 기독교단체 대표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연설을 영어로 통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시퍼렁던 시절, 잘못하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안기부로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원수는 사랑하는 거야”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눈 딱 감고 용기를 내 통역을 하고 나니 장내에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 경험은 나에게 굉장한 자유와 해방감을 줬다. 수십 년간 붙들어 온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했다.

88년부터는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관심을 전환했다.

사회참여의 우선순위를 ‘선 민주, 후 통일’이라고 여겨왔는데, 오랜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통일

이 안 되면 온전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진보적 그룹들이 함께 선 평화·통일을 명시한 '88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과 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하기 훨씬 이전인데도, 미소 양 강대국과 남과 북을 향해 '비핵화'라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때의 바람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서광선의 정치신학여정'이라는 부제를 붙인 책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를 출간했다. 자신의 삶을 책으로 갈무리한 소감이 남다를 듯하다.

돌아보면 참 놀랍기만 하다. 내 삶에서 내 의도나 힘으로 된 게 거의 없다. 인민군 의사는 어디 아픈데도 없는 나를 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켰던 걸까, 미국에서 잠시 만난 친구는 어째서 내게 미국유학을 권유했던 걸까, 지금도 의문이다. 결국 덤으로 주어진 목숨이 뜻밖에 찾아온 기회를 만나 이 나이까지 나를 살게 했다. 내 삶 자체가 누군가의 사랑의 선물인 셈이다. 민주화운동도 평화 통일 운동도 그 빛을 갠기 위한 나의 작은 노력일 뿐이다.

남은 소망이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지난해 지인들을 초청해 출간기념회를 겸한 미수잔치(88세 생일잔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은 미리 하는 내 장례식'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죽어서 눈 감으면 누가 왔는지 보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하겠다는 말이었다. 제 장례식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웃음). 미수잔치에 다녀간 지인이 자기 아내에게 "오늘 서광선 목사 장례식 다녀왔으니 나중에 서 목사 죽으면 안 가도 돼"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아버지 죽인 원수 용서한 서광선 목사³²⁾

서광선(83) 목사만큼 '공산당이 싫다'고 절절히 외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공산당을 반대한 그의 부친 서용문(1905~1950) 목사는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인민군에 끌려갔다. 4개월 만에 이승만과 맥아더가 평양에 입성하자 교인들이 대동강변 갈대밭에서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냈다. 다섯명이 굴비처럼 함께 묶여 있었기에 주검이 갈대밭에 걸려 바다로 쓸려 내려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따발총 자국이 선명했다. 서 목사는 아버지의 기막힌 일생 때문에 더욱 서러웠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조 말 무과에 급제해 함흥을 지키던 장군이었다. 장군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의병을 결성해 저항하다 순국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라 잃은 노예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며 자식에게 차례로 극약을 먹고 자신도 자결했다. 그러나 5남매 중 막내에겐 차마 약을 먹이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거둬 자강도 강계에 시집가 살던 장군의 여동생에게 보냈다. 그 두살배기가 서 목사의 선친 서용문이었다.

서용문은 한 여자 전도사의 손에 이끌려 미션스쿨인 영실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해 목사가 되었다. 예수교장로회의 근본주의적 신학을 지향하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서용문은 평북과 간도 일대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1937년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해 경찰서에 붙들려가 모진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어려운 전도생활 중 아내(서광선의 어머니)는 32살의 나이로 병이 들어 사망했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동족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32) 한겨레신문(2014-01-21), 조현 종교전문기자, <https://www.hani.co.kr/arti/well/people/939927.html>

당시 19살 청년인 서 목사는 부친의 처참한 주검을 부여잡고 “이 철천지원수를 기어코 잡고야 말겠다”며 울부짖었다. 그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한국전쟁 월남인’들처럼 남에서 빨갱이 사냥과 중북론의 선봉장이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유신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그것도 조용히 뒤에서. 그는 최근에도 씨알재단과 와이엠시에이(YMCA)의 초청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 등을 강연했다.

세계적인 엔지오(NGO)인 와이엠시에이 세계회장을 지낸 거물이면서도 한차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만큼 얼굴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그를 20일 만났다. 서울 신촌 봉원사길에 위치한 4~5평 남짓한 그의 서재 공간에서였다. 그의 부인 함선영 전 이화여대 교수도 동색이어서 이날 아침까지도 “평생 안 만나던 기사를 만나려고 하느냐”며 구박을 했단다. 지금도 테니스와 스키, 스케이트를 즐기는 서 목사는 나이가 믿기지 않아 보인다. 아마 육체적인 젊음보다도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만한 ‘케미’(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케미스트리’의 줄임말인 신조어)가 느껴진 때문일 것이다. 일문 일답이다.

테니스를 누구와 치는가?

일산의 아파트에 사는데 노인들과 주로 친다. 운동과 친교를 함께 하니 재밌다. 테니스장에서 어울리는 노인들 90%가 ‘꼴보수’다. ‘김대중’은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고, 테니스공을 ‘노무현 대가리’라며 날린다. <한겨레>를 본다고 하면 ‘그것도 신문이냐. 북한 빼라지’라고 한다.

어울리는 게 힘들지 않은가?

학교에만 있을 때는 모르던 세상을 배운다. 한두 명이 강력히 선동하면 너도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따라간다. 그런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얘기도 경청하고, 눈치 볼 것 없이 내 의견도 말한다. 그래도 교수라서 그런지 막 대하지 않고 들어주는 편이다.

살아오면서 삶의 화두가 있었는가?

6·25가 발발돼 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간 뒤 마루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있던 중 잡혀 인민군 징집 신체검사장에 끌려갔다. 그런데 군의관이 멀쩡한 나를 보고 ‘너 아프지?’라며 불합격 도장을 찍어줬다. 나올 때 누군가 불러 돌아보니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다. 동생은 검사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나왔다. 그것이 우리가 본 마지막이었다. 그때 징집되면 대부분 낙동강에서 죽었다. 이후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 국군 해군소년통신병으로 지원해 근무하다가 1953년 휴전 뒤 미국에 있는 해군종합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때 함께 훈련받던 미군이 2년 뒤 대학 입학허가서와 재정보증서를 보내와 미국 유학길을 열어줬다. 중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인 그 미군은 한국 서해 작전 중 전사해 만나지 못했다. 왜 인민군 군의관은 나를 살려주고, 미군은 그렇게 도와줬을까. 평생 그 질문이 따라다녔다.

근본주의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인민군에 의해 순교한 이의 자식이 어떻게 배타와 증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그래서 아버지를 잘 아는 분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도 듣는다. 뉴욕 유니언 신학대의 경험이었다. 당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민권운동에 유니언 신학대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백인 학생들과 흑인 교회에 가 함께 봉사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좀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학풍과 공부를 통해 예수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선 ‘내 (개인적) 역사의 감옥’으로부터 나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 용서에 어려움은 없었나.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주도로 1986년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독일 미국 러시아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다. 그 때 김일성의 스승이자 외당숙벌인 강양욱 목사의 아들인 강영섭 목사가 왔다. 그런데 강영섭 목사가 내게 통역을 해달라고 했다. 그 때는 시절이니 시절이니만큼 이적행위로 귀국하자마자 잡혀갈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편에 선 강양욱 목사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과 한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도 아버지에게 미안했다. 그날 밤을 새워 기도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영섭의 통역을 해줬다. 훗날 정보기관의 주요간부를 만났더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아시아기독교 고등교육재단 부총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봉수교회에 가서 인사말을 했다. ‘모란봉도 그대로 있고, 대동강물도 그대로인데, 사람만이 변했다’는 말에 봉수교회 신도들이 많이 울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졌다. 인간들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세대가 바뀌어도 이데올로기적 증오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적대적 공생 관계 때문이다. 원수가 있어야 내 정체성이 가능해지는 게 정치심리학이다. 남북이 엄청난 격차가 있기에 진정한 자신감이 있다면 중북이나 좌빨이라는 허수아비를 갖고 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도 진짜 그리스도교라면 이 문제와 정면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한다’면서도 설교에서 중북, 좌파를 거론하며 적대감을 부추기는 현실 말이다.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가.

며칠 전 와이엠시에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한생이 ‘왜 통일이 안되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강의 뒤 나오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할테니 할아버지 걱정마시라’고 했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를 죽이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옛세대가 가고, 자신의 과오를 다음세대까지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함께 사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 내 손주들도 ‘빨갱이와 일본놈들은 다 싸 죽여야 돼’라고 했다. 그들도 처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도록 납득하는데 2년이 걸렸다. 60~70년대식 반공교육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인세대는 비록 동족을 죽이고 죽는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의 자식 손주들은 다른 세상을 열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다시 ‘유신’으로 회귀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6·25 이후엔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하고, 최근 ‘유신시대가 좋았다’는 말도 들었다. 배부른 소리다. 나는 되풀이된다는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이해는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 헤겔이 말한 정반합처럼 3박자 왈츠 식으로 들쭉날쭉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패배주의·허무주의 역사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마지막 육성 인터뷰³³⁾

내년 2023년은 625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 철조망을 모두 걷어 버리고, 그 땅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고, 남과 북의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젊은 등산객들, 자전거 경주자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 건물이 철원 휴전선 바로 남쪽에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남과 북에서 모여드는 학자들과 학생들이 한데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계획하고, 우리 금수강산을 살리는 일을 논의하는 평화통일 생태 교육과 연구 중심을 만들 것입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1만 시민 참여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뜻있고 멋진 역사적인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기차역에서 북한의 원산까지는 기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이 건물이 완성되는 날, 종전선언과 함께 철원 평화학교 새 건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3) 국경선평화학교에 보내는 마지막 영상 인터뷰(촬영 : 정은경, 2022년 2월 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YNJx-p8ZKCI>

